

2021 **07** Vol. 373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사 랑



그분이 누구신가
어디서 오셨지
어떻게 나에게 오셨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마태 9,28)

내겐 설렘 일이 아니다
그분은 내 마음 혼드는 일조차 없이
또 떠나실 것이다
오시든 또 가시든 빈 마음은
깊이 감사드릴 뿐이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사랑
- 03 차례
- 04 강의 / 김형신(이나시오) 신부
개정회칙에 드러난 재속회의 자율성(2)
- 07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6길
- 08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54)
- 11 웅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영광이 영원한 천국
- 12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5)
- 16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28)
- 18 영혼의 성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7)
- 22 어두운 밤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3)
- 26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와 해설 / 김석영(요셉) 수사
귀양살이 하소연
- 29 선교 / 김석영(요셉) 수사
당신 가신 길
- 32 기적의 스카폴라
- 34 공동체 이야기 / 상주 공동체
은총이 넘치는 기쁨의 삶
- 36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2)
- 40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 42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박지현(요셉피나)
오늘 하루의 기적
- 44 회원의 글 / 이정미(헬레나)
기도가 되는 것을...
- 45 축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 47 회원의 글 / 남가주 공동체
하느님 감사합니다
- 48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8)
2021년 9월 영적나눔
- 50 비둘기
- 52 그림 단상
- 표지그림
- 찬미(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3호 (2021 7.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강의 *

한국 가르멜 재속회 “개정 회칙” 안에서 드러난 재속회의 자율성에 관하여

김형신(예수의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참사회는 회장과 3명의 참사, 수련장으로 구성되며 그 공동체의 직접적인 권위를 가진다. 참사회의 주된 임무는 공동체 회원을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으로 양성하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회헌 46조)

참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양성, 서약 및 서원 후보자들을 승인하는 일
- ②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구장의 허락을 받아 단순서약 전의 양성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일
- ⑦ 참사회는 소관 공동체의 성장과 양성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자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모임을 가진다. (회헌 47조)

참사회의 역할중 주요 역할은 공동체 회원들을 ‘양성하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현재 재속회원의 양성은 주로 수련장과 양성책임자가 맡고 있기에 이 부분들을 존중해 주면서도 참사회가 양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우선적으로 양성책임자와 수련장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속회원의 식별 및 평가를 위해 참사회는 양성책임자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물론 구역장의 소견서를 받기도 하지만, 식별을 위해선 더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련장은 참사회에 양성책임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참사회는 양성책임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사회에서 양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사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양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례참사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총무참사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양성에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단지 ‘나중에 식별 평가만 잘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성에 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사회 안에서도 양성에 있어서 일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양성의 개념, 목적, 어떤 재속회원으로 양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른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에 식별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다른 참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참사회가 양성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향하는 양성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식별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또한 이런 식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없다면 참사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령, 나는 저 회원이 종신서약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 참사는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때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종신서약자 재교육' 과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의를 참사회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는 꼭 가르멜 수사님들만 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참사회에서 종신서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강의를 준비해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도회 측에서 해야 할 것은 양성에 관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사회의 중요 역할이 '양성' 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식별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식별에 관한 교육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회기에 한 번 참사회 교육, 양성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양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 회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참사회와 협조사제가 상의해야 할 부분들

1) 입회 시 연령 초과 (2조 4항)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양성과정을 밟을 수 있어야 하고,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으로서 요구되는 삶의 양식을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연령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관구장 대리사제에게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

2) 결석 시 관면에 관하여 (7조 4항, 10조 6항, 13조 5항, 14조 4항 동일)

부득이한 사유¹⁾로 결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관면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관구장 대리사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앞서 2회 결석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했을 경우 관면 받을 수 없다.

3)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 (17조)

참사회는 합당한 사유 없이 자주 반복적으로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을 면담하여 그 회원의 재속 맨발 가르멜회 탈퇴 의사를 확인한다.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헌 24조 ⑤항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서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관구장의 승인을 받아 제명한다.(회헌 제47조 제⑤ 참조) 이 과정에서 참사회는 형제애를 가지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4) 단독회원에 대해 (27조 1항, 28조 3항)

연령, 질병, 거리 또는 다른 합당한 사유가 있어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참사회와 협조사제가 상의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관구장 대리사제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만 75세 이상인 회원 중에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 할 수 없거나,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경우,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한 후 그 회원을 면담하여 단독회원을 권유할 수 있다.

5) 단독회원 지정 해제 (28조 7항)

단독회원은 위 제②항의 해당 조건이 해소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참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단독회원 지정 해제를 관구장 대리사제에게 요청한다. (회헌 제56조 참조)

6) 회장 선출에 관하여 (45조 1항)

그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선거일 현재 중

1)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교통사고, 직계 조·경사, 위급한 수술

신서약 후 3년이 지난 회원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한 후 관구장 대리사제에게 관면을 청할 수 있다.

7) 수련장 선임에 관하여 (49조 1항)

수련장은 참사회가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종신서약 후 3년이 지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회헌 제50조 참조)

8) 양성책임자 임명에 관하여 (54조 4항)

참사회는 수련장과 협조사제의 의견을 들어서 양성책임자를 임명한다.

9) 구역모임 회원 수에 관하여 (55조 3항)

구역모임의 회원 수는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0) 회원의 교정에 관하여 (57조 2항)

참사회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적어도 2회에 걸쳐 교정을 위한 면담을 할 것이다. 그 후에도 형제적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헌 24조 ⑤항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직위 해제, 자격 정지, 제명 등 적절한 제재를 한다.

개정 회칙에서는 위와 같이 참사회가 협조사제와 상의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의'(consultation)는 참사회가 협조사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듣는 상담일 수도 있고, 혹은 협조사제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지시와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속회 편에서 본다면 수도회에 대한 지나친 의존, 수도회 편에서 본다면 재속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하려다 보면, '상의'가 '지시 또는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의'를 위한 대화에는 '사랑', '신뢰', '존중', '신중' 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7. 개정 회칙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바뀌게 된 기타 사항들

1) 지원 자격 연령 조정 (2조 1항)

교회법상 장애가 없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신자로서 세례성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났고 견진성사를 받은 자.(50세에서 55세로)

2) 제명하는 회원에 대해서 (17조)

참사회는 합당한 사유 없이 자주 반복적으로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을 면담하여 그 회원의 재속 맨발 가르멜회 탈퇴 의사를 확인한다.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헌 24조 ⑤항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서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관구장의 승인을 받아 제명한다.(회헌 제47조 제⑤ 참조)

이 과정에서 참사회는 형제애를 가지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회헌 24조 ⑤항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서' (following exactly the procedure that is in the OCDS Constitution number 24 e) 라는 표현이 추가됨)

3) 단위 공동체의 최대 인원수(41조)

단위 공동체의 최대 인원수는 100명(단독 회원이 포함된 종신서약자 인원수)이다. 총 인원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그 공동체를 분할한다.(회헌 제58조 제⑦항 참조) 단, 관구장은 상황을 고려하여 단위 공동체 분할 문제를 결정한다.(150명에서 100명으로)

4) 회원의 교정에 대해서 (57조)

참사회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적어도 2회에 걸쳐 교정을 위한 면담을 할 것이다. 그 후에도 형제적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헌 24조 ⑤항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직위 해제, 자격 정지, 제명 등 적절한 제재를 한다.(회헌 24조 ⑤항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라 (following the procedure that is

in the OCDS Constitution number 24e) 라는 표현이 추가됨)

결론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은 남녀 수도자들과 함께 가르멜산의 성모님과 예수의 성녀 데레사 수도회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은 각자 고유한 생활 신분에 따라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살아감으로써 남녀 수도자들과 함께 같은 카리스마를 공유한다.” (회헌 1조)

가르멜 남녀 수도회와 가르멜 재속회가 같은 카리스마를 공유하는 ‘가르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관계 안에는 가족애(家族愛)가 있을 것이고, 상호 존중(相互 尊重)과 상호 협력(相互 協力)을 통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율성은 이런 가족적인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는 존중과 협력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간섭이나 통제도 없을 것이고 지나친 의존이나 독립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결코 수도회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도회 측에서는 영성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고, 이를 통해 서로 간에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직에 관한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협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르멜 재속회와 가르멜 수도회가 예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시선으로 한 곳을 바라볼 것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지를 보내면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 성소 *

가르멜로 74-56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우리는 겨울에 1년 동안 먹을 김장 김치를 담급니다. 그 전에 김치를 담글 배추를 키우죠. 잘 자란 배추의 뿌리를 잘라 김장을 하고 나면 밭에는 버려진 잎과 뿌리만 남아 있죠. 하지만 개중에는 뿌리만 남은 그 자리에서 새싹을 틔워내기도 합니다.

이미 수확이 끝난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추는 봄을 지내면서 겨울철 그 맛과는 달리 알싸한 맛을 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자라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많은 사람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이미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한 뒤 돌아선 우리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죠. 특히 텅 빈 밭처럼 부정적으로 판단해버린 모습 뒤에 어느새 성숙해진 좋은 모습이 있곤 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우리 모습에서 또 다른, 보다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그어놓은 선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죠. 하느님과 우리의 노력이 만나 지금보다 나은 나, 지금보다 나은 그 사람이 우리 뒤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깐요.*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4)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제5부: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해체와 부활

제1장: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르멜의 해체

3. 포르투갈 맨발 가르멜 수도회 (계속)

포르투갈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창립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녔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그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연관된다. 마침내 1640년 포르투갈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주앙 2세는 자신의 신하들로 하여금 스페인과의 모든 교류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로부터 몇 년간 두 국가 간에는 교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포르투갈의 가르멜 수사들은 로마 교황청에, 스페인과는 독립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관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허락을 청했다. 교황청은 이에 대한 허락을 주었다. 그동안 포르투갈 수사들은 통상 파스트라나 수도원에서 개최되곤 했던 수도회 총회에 8년간이나 참석하지 못했다. 1761년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 국왕이 프랑스의 루이 15세와 소위 ‘가족 협약’을 맺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카를로스 3세가 포르투갈도 이 협약을 맺도록 제안했지만, 포르투갈은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카를로스 3세가 영국 함대에 맞서 포르투갈 국경 근처에 스페인 군대를 소집했을 때, 포르투갈 가르멜 수사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났다.

1762년 포르투갈 가르멜 수사들은 당시

의 상황을 보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 결국, 그들은 1640년에 받았던 예외적인 특전들을 다시 청해서 얻어내게 된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특전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수사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워갔으며, 결국 1772년 당시 관구장인 예수 마리아의 파블로 신부가 관구 총회를 소집했을 당시, 그 총회를 “수도회 총회의 효력을 갖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포르투갈의 교황 대사로부터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동시에 국무성 장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이 총회는 페냐피엘(Peñafiel)의 주교인 가르멜 회원, 성 카예타노의 이냐시오(Ignacio de San Cayetano)가 주재했다. 이렇게 해서 이 총회와 더불어 ‘가르멜산 성모님’을 주보로 하는 포르투갈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 수도회는 기존의 성 필립 관구의 영토와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수도원들을 자신의 관할권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 수도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세기 초반에 유럽 전역을 휩쓴 자유주의 정권들로 인해 촉발된 대혼란의 와중인 1834년, 이 수도회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수도회가 채택하고 따랐던 삶의 규칙인 ‘회헌’은 스페인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회헌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포르투갈의 상황에 맞게 몇 가지 사항들을 적절하게 변경해서 첨가했다. 이 수도회는 설립되어 폐쇄되기까지 약 70년의 역사 동안 다음과 같이 많은 주교들을 배출했다: 성령의 안토니오(앙골라의 주교, 1672-1674), 성녀

데레사의 루이스(올린다[브라질]의 주교, 1738-1757), 십자가의 요한(리오데자네이로의 주교[1739-1750], 마린다 도 도우로의 주교[1750-1756]), 성녀 아녜스의 마누엘(앙골라의 주교[1745-1762], 바히아의 주교[브라질, 1762-1771]), 성녀 카타리나의 마누엘(코힘의 주교[인도, 1771], 고아의 대주교, 인도 동방교회의 수석 대주교[1783]), 성 카예타노의 이냐시오(페냐피엘의 주교 [1771-1778], 테살로니카의 대주교이자 종교 재판소 장관[1778-1788]), 메미노 헤수스의 요셉(마란하오의 주교[브라질, 1780-1783], 세데비세우의 주교[1783-1791]), 솔레닷의 요셉(코힘의 주교[인도], 1783-1817).

제2장: 수도회의 재설립과 확장

1. 스페인에서 수도회의 재설립

19세기 전반기에 스페인 교회를 휘몰아쳤던 오랜 박해는 19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져갔다. 그리고 점차 제반 수도회들에 대한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스페인 내에서 맨발 가르멜의 복원이 시도되었다. 1851년에 체결된 새로운 협약과 더불어 국외 선교를 위한 선교 콜레지오가 설립되었다. 사라져버린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대표였던 말도나도 신부는 맨발 가르멜을 복원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모로 시도했으며, 그 일환으로 카스테욘에 있는 ‘데시에르토 데 라스 팔마스’에 수련소를 설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주의 정부는 그에 대해 어떠한 승인도 주지 않았다.

로마 총본부에서도 이를 위해 시도했다. 특히 당시 총대리인 예수 마리아의 파스칼 신부는 스페인 밖으로 추방된 회원들의 복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 심지어 그는 1863년에 교황에게 이태리의 여러 수도원에 흠어져 사는 스페인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스페인에 있는 폐쇄

된 수도원들을 양도받을 수 있는 허락을 청하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미래의 스페인 회원들과 멕시코 회원들을 양성시키고자 했다. 이에 관한 교황청의 답변은 알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스페인 내에서 맨발 가르멜의 복원은 이미 사라진 스페인 맨발 가르멜이 아니라 그 가르멜 출신으로 프랑스로 피신해서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소속되어 가르멜 성소를 이어가던 젊은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 가운데 주역들이다.

1.1. 성 요셉의 도밍고(1799-1870)



성 요셉의 도밍고 신부

그는 프랑스 관구를 바탕으로 스페인 가르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주역이다. 그는 1799년 스페인 북동부의 나바라 지방의 푸엔테데라레이나(Puente de la Reina)에서 태어났다. 그는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군사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7살에 가르멜에 입회해서 이듬해인 1817년 9월 5일 수련 착복을 했다. 수도회의 신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칼라오라(Calahorra)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팜플로나(Pamplona)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1833년 페르난도 7세 국왕의 서거를 기념해서 봉헌한 미사에서 한 강론으로 인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원에서 피신해 군종 신부로 복무했다. 이듬해 돈 카를로스는 그를 왕궁의 설교자이자 국왕 수비대의 군종으로 임명했다.

1839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도밍고 신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그는 체제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고 말았다. 결국 도밍고 신부는 프랑스로 피신해야 했다. 그는 1839년 3월 4일 보르도에 도착했으며, 이때부터 멕시코 배를 타고 남미로 건너가 새롭게 가르멜 수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봤다. 그러던 와중에 보르도 가르멜 수녀원의 원장으로, 1793년 이후로 사라져 버린 프랑스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많이 시도했던 야기 예수의 바틸드(Batilde) 수녀를 만나게 되면서 반전을 맞게 된다. 바틸드 수녀는 도밍고 신부로 하여금 수녀원 내의 지도신부 집에서 공동체를 조직해서 수사들의 공동체를 복원하도록 설득했다. 이에 도밍고 신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도밍고 신부는 1839년 10월 14일 성녀 데레사 축일 전날 저녁기도 때 또 다른 한 명의 수사와 함께 그 집을 수도원으로 축성하고 정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달 후, 도밍고 신부의 제안으로 같은 스페인 출신인 성사의 루이스 신부와 성녀 데레사의 마누엘 수사(당시 부제)도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창립 멤버들이 스페인 맨발 가르멜 소속이었던 데 반해, 이들이 공동체를 창립한 지역은 이태리 맨발 가르멜 관할에 속하는 프랑스였다.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밍고 신부는 로마로 떠나게 된다. 그는 로마에서 이 문제를 스페인 맨발 가르멜 총대리 신부와 이태리 맨발 가르멜 총장 신부에게 의논했으며, 논의 결과, 그들은 이 공동체가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840년 11월 28일 19세기 들어와 처음으로 프랑스에 첫 번째 남자 맨발 가르멜 수도원이 교회법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신생 공동체 회원들의 열정과 모범은 당시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봉쇄해제 된 스페인 회원들을 비롯해 그들과 접촉하던 젊은 성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남자 가르멜 수도원들이 빠르게 창립되기

시작했다. 1853년에는 아키타인 관구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브루세이, 아쟁, 카르카손, 보르도, 몬티니 같은 수도원들이 설립되었으며 약 80명의 수사들이 있었다. 그중 절반은 프랑스 수사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스페인 수사들이었다. 도밍고 신부가 이 지역에 도착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15개의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1853년 수도회 총회에 참석한 모든 관구장들은 아키타인 지역의 발전상을 접하며 기뻐했고 이 지역을 관구로 승격시켰다. 또한 1859년 총회에서는 도밍고 신부를 부총장으로 선출했으며 1865년 총회에서는 그를 이태리 맨발 가르멜의 총장으로 선출했다. 도밍고 신부는 1870년 7월 13일 로마에서 임종했다. 당시 교황이던 비오 9세는 살아생전에 그를 상당히 존경했다고 한다. 도밍고 신부는 프랑스에 맨발 가르멜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1850년부터 1880년 사이에 인도의 말라바르와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수도회 내에 선교적인 열정을 진작시킴으로써, 당시 어려운 시기를 거치던 수도회에 큰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12. 예수 마리아의 베드로 호세(1822-1892)

그는 1822년 스페인 북동부의 바스코 지방의 마르키나(비스카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살던 동네의 수도원을 다니며 가르멜 성소를 키웠다고 한다. 그러나 180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스페인 내의 제반 수도원들에 대한 박해와 폐쇄로 인해 잠정적으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로그로뇨(Logroño) 신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으며, 프랑스에서 맨발 가르멜 수도원들이 설립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845년 23살의 나이에 프랑스로 가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 옹달샘 *

영광(榮光)이 영원한 천국(天國)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이신 동시에 지극히 공의(公義)로우신 정의(正義)의 하느님이시므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賞)을 내려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에는 벌(罰)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곧 하느님의 대전에 나아가 일생에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받는 심판을 사심판(私審判)이라 하고, 세상 마칠 때 산 이나 죽은 이가 하느님 앞에 모두 모여 받는 심판을 공심판(公審判) 또는 최후 심판(最後審判)이라 합니다.(마태 25장 참조) 공심판은 사심판의 결정이 모든 이들 앞에서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죽음, 심판, 천당, 지옥을 사말(四末)이라 합니다. 누구나 한번은 죽어야 하고, 목숨(Psyche프시케)이 끊어짐이 죽음인데, 죽음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육신(肉身)은 흙(먼지)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不滅)하므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심판의 판결은 각각 다릅니다. 은총 지위에 있어 아무 보속할 것이 없는 영혼(순교자, 성인 성녀들)과 십자가상의 우도나 영적 어린이처럼 온전히 하느님께 매달리고 의탁하여 회개한 이들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대죄(大罪) 중에 있으면서 끝까지 하느님께 반역하여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바로 지옥에 내리며, 소죄(小罪)나 보속할 잠벌(暫罰)이 남아 있는 영혼은 연옥에 가서 정화(淨化, purification)가 끝난 다음 천국에 오르게 됩니다. 연옥 영혼은 이미 성도(聖徒)로서 천국을 맡아 놓은 영혼들입니다.

천당(天堂)은 천사와 성인 성녀들이 하

느님을 모시고 완전한 복락(福樂)을 끝없이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 복락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영화롭고 복된 바라봄(Visio beatifica)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만선미호(萬善美好)하심을 믿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만선미호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1요한 3, 2 참조) 그 만나봄이 지극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1고린 13, 12)

두 번째 천국 복락은 하느님께 대한 지극히 영화롭고 복된 사랑(Amor beatificus)입니다. 만선미호하신 하느님을 표상(表象)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식하면 필연적으로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 자체가 복락(福樂)입니다.(윤형 중, 상해 천주교 요리 상 참조)

“의인(義人)들은 영원한 생명(zoe조에)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마태 25, 46)

천국 복락은 여러 억만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복과 영벌이 죽는 순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님의 휴대폰 번호가 010-9342-1035로 변경되었습니다.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5)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신부 옮김/인천 수도권

1. 알랑송

노예생활에서 자유로워지다

정말 기적이 하나 일어났으며, 무척이나 기뻐던 켈리는 자기 올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내 생각에 언니가 나를 위해 굉장한 은총 하나를 얻어준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난 레오니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었지. 그 애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었단다. 난 전부 시도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 (그런데) 난 몰랐지만, 하녀가 그 애를 꼼짝 못하게 해서 아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구나. 그러한 사실을 마리가 알아차리고는 나에게 말해주었지.

난 그 아이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단다. 그래서 난 레오니에게 소용이 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 삶이 무가치하다고까지 느꼈었지. 하지만 토요일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단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방식으로 말이지. 올케에게 모든 내용을 자세히 말해줄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단지 난 그 애가 내 곁을 떠나려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언급해야 하겠어. 난 레오니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고, 마리도 마찬가지야. 그 하녀가 선을

지향하는 레오니의 능력을 앗아가 버렸단다. 난 레오니에 대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단다. 전에는 그 애에게 몸단장하고 외출하게끔 납득시킬 수가 없었지. 하지만 어제와 오늘, 그 애는 나와 함께 외출하기 위해 옷을 잘 차려 입었단다. 그리고는 어디든지 날 따라가고 싶어 했단다.

확실히 마르탱 부인은 레오니의 이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데, 남편의 사랑과 상냥하고 총명한 다른 네 여자아이들이 가져다 준 기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째서 자기 아이가 성공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실패작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째서 하나로 일치된 가정이라는 멋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끔 어떤 넘어설 수 없는 장벽에 자신이 가로막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기 하녀가 어느 누구도 유순하게 만들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아이를 정복함으로써 의기양양해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있었을까?

지켜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루이즈(하녀)는 레오니를 때리고 위협했으며, 권력에 대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그 아이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 포악한 하녀는 레오니가 오로지 자기한테만 복종하게끔 은밀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되어, 레오니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

으며, 만약 자기 부모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면 자기에게 가해질 수 있는 처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1877년 3월에서야 비로소 마르탱 부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레오니의 행동에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마르탱 가족 모두 크나큰 위로를 받았다. 마르탱 가정의 가엾은 아이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만 했던 누군가에 의해 학대받았던 것이다.

(사건에 대한) 설명

마르탱 부인은 지체 없이 폴린(둘째 딸)과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었다. 일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 폴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이다.

난 네 이모의 기도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단다. 이모 수녀님이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엾은 레오니의 사례에 대해 변호해달라고 간청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모가 기도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너도 알다시피 네 여동생은 다음과 같지 않았니. 곧 고분고분하지 않고, 강요받지 않는 한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며, 순전히 외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그 애가 해 주기를 바랐던 모든 것에 대해 반대로 행동했고, 심지어는 그 애 스스로가 그것을 하고 싶어 했을 때조차도 (그렇게 반대로 행동했지). 그러면서 오로지 하녀의 말만 따랐단다. 난 그 애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지. 오늘까지도 말이야. 난 항상 실패했으며, 그러한 실패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었단다.

네 이모의 선종 이후로, 난 이모에게 계속해서 가엾은 내 아이의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 주게끔 간청했었지. 그리고는 오늘, 주일 아침에,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거야. 이제 그 애는 완전히 나에게 속해 있단다. 다시 말해 그 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 쉴새 없이 나한테 입맞춤을 하고, 그 애한테 답을 기대하지 않고 말한 모든 것을 하지. 내 곁에서 하루 종일 일한단다. 그 하녀는 레오니에게 끼쳤던 모든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상황이 그런 식으로 판명되었으니까, 분명 절대로 그런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겠지.

그런 결과는 (하녀) 루이즈에겐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마르탱 부인이 자기에게 당장 집을 나가야만 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울음을 터트렸다. 그 하녀는 마르탱 부인에게 간청해서 결국 당분간 머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레오니에게 말하는 것은 금지 당했다.

마르탱 부인은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폴린과 함께 나누었다.

이제 난 그 애를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고 있단다. 점차 내가 그 애의 부족함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레오니는 어제 나와 함께 산책하러 나갔지. 우린 클라라 봉쇄 수녀원을 방문했다. 그 애는 내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였단다. “엄마, 내가 수녀가 될 수 있도록 봉쇄 수녀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줘.”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단다. 이 일이 지속되도록 희망하자꾸나. 이제는 더욱 더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레오니는 어린 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층 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단다. 글썄, 내가 믿고 있는 것만큼이나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복되신 동정녀께서 나를 낳게 해 주실 거라 확신해. 확실히 난 올해 루르드에 갈 예정이란다. 마리, 너, 레오니, 그렇게 우리 모두 가도록 하자.

악몽의 끝

마르탱 부인은, (하녀) 루이즈가 레오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격분해 있는 상태에서, 폴린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그 하녀를 내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하구나. 이제서야 난 그 하녀가 가엾은 레오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게 되었다. 난 절대 그 일을 잊을 수 없을 거야. 누군가 냉혹하게 그 가엾은 아이한테 저지른 그런 짓들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난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을 테지. 지금에 와서야 레오니는 (그 당시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불평조차 하지 못했다고 나한테 말해준단다.

그 하녀가 정말이지 자기 생각에 나를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 있겠니. 다시 말해, 그 하녀는, 자기 의견으로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네 여동생을 제압하는 일을 그럭저럭 잘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영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런 야만적

인 행위로는 그 누구도 절대로 제압하지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일이 바로 나의 가엾은 아이한테 일어났던 거란다.

난 레오니가 잠깐 노는 것마저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단다. 매번 식사 후에, 그 애는 식탁을 닦고, 식당을 정돈하려 했지. 간단히 말해, 그 애는 하녀가 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 난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 지쳐버렸단다. “정원에 나가 놀도록 하렴. 넌 다른 애들이 재미있게 노는 동안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단다.” 지금에 와서야 난 그 하녀가 레오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지. “만약 네 어머니가 레오니 너한테 나가서 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넌 나중에 벌 받을 줄 알아” 라고 말이지. 그런 생각이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구나.

이제, 레오니는 네 살 먹은 아이마냥 행복하게 뛰어논단다. 그 애는 약간 더 시끄럽게 군단다. 그리고 강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처럼 조용히 있지 않지. 난 강제로 그 애를 조용히 시키려고 하지만, 그 애는 아주 시끄럽게 군단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그 애의 변모가 이루어질 거라고 희망하자꾸나. 이런 희망으로 인해 난 내가 여태껏 지냈던 것보다 더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게 된단다... 하지만 난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지. 이제는 그분께서 나를 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한단다. 난 내 질병을 없애 주시라고 그분께 청하지는 않아. 난 기꺼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할

거란다. 난 단지 레오니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동안만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고 그분께 청할 뿐이지.

희망의 빛

그 거친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유순해졌다. 곧 레오니는 자기 어머니에게 다정했으며, 주어진 작은 일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실천했다.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었던 가엾은 젤리는 마침내 그 때까지만 해도 침묵이나 웅고집으로 자기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외로운 딸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폴린과 게령 부인에게 보낸 마르탱 부인의 모든 편지 속에서, 이제는 예외 없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 보답을 받게 된 어머니의 다정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자기 울케와 기쁨을 나누었다. “난 레오니를 향해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보고 있어. 언젠가는 레오니의 변모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 빛이 내게 말해주고 있지. 그 애는 나를 무한히 신뢰하고 있단다. 그 애 심지어 정말 사소한 잘못까지도 나한테 말해준단다. 그 애 정말로 삶이 바뀌길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난 이 점에 대해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릴 수 있어. 난 그런 변모가 복된 언니(수녀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젤리의 언니인 방문회 수녀님은 자기 수녀회의 창립자인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과 함께 레오니의 사례를 두고 간절히 호소했음에 틀림없다. 그 성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다. “하느님께서 강한 자들을 손잡아 이끄십니다. 하지만 약한 이들은 당

신 양팔에 안은 채 데리고 가시지요.”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연약하기만 했던 레오니를 당신 양팔에 안아 데리고 가셨다. “가엾은 레오니”가 직면했던 상황을 이해할 때, 그녀의 완강한 고집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오니는 자기의 습관을 고치려 부단히 노력했다. 그것은 어려운 과제였으나, 그녀의 부모님과 언니, 동생들은 온갖 친절함과 끈기와 인내심으로 그녀가 자신의 이상한 성격을 부드럽게 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17쪽에서)

그러므로 이런 일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탈혼이나 법열의 순간에 하느님의 작용은 결정적이다. 그분의 작용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근본 바탕이 된다. 이러한 하느님의 작용을 감지하는 것은 신비가의 체험에 있어서 정수(精髓)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전형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거치는 수덕적인 역동성의 어스름한 빛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페달처럼 보인다. 이 선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은총은 부차적인 요소처럼 드러난다. 반면, 신비가에게 있어서 이 은총은 우선적인 차원에 속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28)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제21장

네 번째 기도 단계의 마지막
진리의 망루에서
이 망루에서 성녀 자신의 모습

본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기도의 후반부를 계속하면서 끝맺는다.” 기도의 단계들에 대한 진술은 성녀 자신의 자전적인 모습에 대한 많은 소개와 더불어 마무리된다. 성녀는 어떤 것을 이론화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자신이 도달한 신비생활의 이 높은 단계에 대해 증언하고자 했다.

이 상태에서 성녀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얻는 드높은 망루” (5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여기서 성녀는 현세의 상황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한계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성녀는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며 포로로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 “이때 그는 육신과 인생의 미천함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있음을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6절).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녀는 행복에 가득 차 있었다: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영혼은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1절). 이 선상에서 성녀는 자신을 마치 여왕처럼 느끼며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제가 당신을 모욕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버리고 제왕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겠습니다” (2절). 성녀는 심지어 실제 제왕들에게도 말을 하고 싶어 했다. 비

록 성녀는 가장 가난한 자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간직한 신비적인 보물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므로써 그들이 이 보화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게 되길 바랐다.

이어서 성녀는 이런 자신의 대담함에 대해 놀라워하게 된다. 성녀는 이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첫 번째 독자인 툴레도의 가르시아(García de Toledo) 신부에게 말한다: “제가 상당히 대담해졌습니다. 만일 신부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거든,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나 만일 임금님들께서 저를 믿으실 수 있거나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 4: 물론,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는 본 장을 없애지 않았다).

성녀가 상당히 과감하게 보다 많은 것을 나누는 또 다른 독자가 있다. 그는 다름 아닌 하느님이시다. 본 장은 성녀가 하느님과 더불어 나누는 독백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도로 흠뻑 젖어있다. 성녀는 하느님께 많은 자유를 청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청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를 적게 두도록 청하기도 했다. 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제가 당신께 뭐라도 봉사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웅적인 행동을 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5절).

본 장의 진행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이야기의 진행은 빠르고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분명하게 교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 신비가(즉, 성녀 데레사)를 향한 하느님의 작용
- 이 높은 영적 단계에서 성녀 자신에 대한 자화상
- 신비적인 종착점의 특징들

1. 하느님의 작용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녀가 기도에 대해 갖고 있던, 두 벗 사이의 교제라는 개념에서 언제나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적인 벗, 즉 하느님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신적인 벗의 우위는 신비적인 기도의 세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특히 네 번째 기도 단계인 합일의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서 영혼, 즉 성녀 데레사는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존재, 신적 도움을 받는 특별한 대상으로 느낀다. 성녀는 이를 특별한 확신의 마지막에 언급했다: “그는 하느님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보살피며 비추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이 영혼이 당신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당신께 봉사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절). 성녀는 이 구절의 초입에 드러나는 “그분의 것” (ser suya)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반면, 여기서 드러나는 또 다른 표현, “조금도 거스르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는 성녀의 여러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드러난다.

또한 성녀는 같은 신학적 대담함과 더불어 본 장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을 끝맺는 데 있어서 이 영혼의 동의는 조금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덧붙여 둡니다. 이미 영혼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바쳤으며 하느님을 속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1절). 성녀는 이를 자신의 여러 독백 가운데

데 어느 곳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저의 생명, 저의 명예, 저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저를 처분하소서” (5절).

이미 자신이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는 느낌(“저는 당신의 것” [el vuestra soy])은 성녀가 지은 가장 아름다운 시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이자 슬로건이 되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저는 당신의 것, 당신을 위해 태어났나이다.
제가 무엇을 하길 명하시나이까?

당신의 것, 당신은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 당신은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여기 제 심장이 있나이다.

제 육신, 제 생명, 제 영혼

제 깊은 속과 애정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감미로운 신랑이며 구원이시여,

제가 당신의 것이 되도록 저를 드렸나이다.

제가 무엇을 하길 명하시나이까?

성녀는 자신이 몇 년간 안간힘을 써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단 한 순간에 이루실 수 있다고 여기며, 그분의 작용에 대해 깊이 확신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이런 황홀경으로도 영혼이 완덕에 이르기 위해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될 정도로 영혼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8절). 이어서 성녀는 하느님께서 왜 이렇듯 특별히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지 물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존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비록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지존하신 주님께서서는 그가 당신이 주시려는 보화를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준비시켜 주십니다.” (9절). (15쪽으로)

* 영혼의 성 연구 *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7)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제 7 궁방 제3장

이 기도의 놀라운 효과들

1. (1항) 데레사는 제7궁방 3장에서 이 기도(영적 혼인의 기도)의 놀라운 효과들을 다룬다고 말한다. 그녀는 영적 혼인의 합일을 한 영혼은 다른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혼 안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산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녀는 합일의 효과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2. (2-3항) 데레사는 첫 번째 효과는 자신을 잊음이라고 말하고 예를 든다. 그녀는 자신을 잊음이란 사람이 먹고 잠자는 것을 잊거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잊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 영혼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3. (4항) 이러한 기도의 두 번째 효과는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싶은 커다란 소망을 가졌지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커다란 소망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5-7항) 이러한 영혼들은 박해를 받을 때 기쁨을 경험하고, 박해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주님을 즐기기 위하여) 죽고 싶다는 이전의 소망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는 똑같이 커다란 소망으로 바뀐다.

데레사는 하느님을 누리고 싶어서 이 귀양살이를 떠나고 싶은 사랑스러운 소망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심 없이 고통을 당하겠다는 소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수정한다. 그러나 그 영혼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지를 보면, 살면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소망이 다시 생긴다.

5. (8-9항) 데레사는 주님 자신께서 그들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더 이상 만족을 바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설명한다.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시다. 데레사는 이 영혼들의 특징이 이 탈, 혼자 있는 고독,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함, 그리고 찬양하고 사랑하기 위한 내면으로부터의 마음이라고 한다. 데레사는 이런 비밀스럽고 내면의 영감에 대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6. (10-11항) 데레사는 (이 장의 8번에서 시작하는) 제7궁방에서의 영적 혼인의 합일이 어떻게 다른 궁방들에서의 경험과 다른지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온다. 여기에서

는 메마름이나 내적 방해의 경험이 없다. 그 영혼은 거의 항상 고요 속에 있고, 악마에 의해 이러한 은혜가 위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영혼은 잘 보호를 받는다. 그 유익한 역할은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느님과 영혼은 가장 깊은 고요 속에 있는 당신의 궁방에서 함께 기뻐한다. 지성은 필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영혼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길을 작은 틈을 통해서처럼 살짝 엿볼 뿐이다.

7. (12-15항) 그 영혼은 여기에서 황홀경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지만 힘을 얻고 평화를 경험한다. 데레사는 이 궁방의 커다란 축복들과 기쁨들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과 사례들을 사용한다. 그녀는 이러한 깊은 평화조차 이승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하느님을 떠남으로 인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이 궁방의 영혼들은 그들의 죄와 잘못들에 대하여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들 자신의 나약함을 걱정하지만,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한다. 데레사는 여기에서도 십자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들이 평화를 잃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이 경험하는 주님의 현존은 곧바로 그들의 두려움을 잊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이다.

설 명

1.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나비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십니다.” 데레사는 제7궁방의 이 장을 그렇게 시작한다. 그 나비는 고치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자아라는 것을 상기하자. 이 새로운 자아의 영혼은 제5궁방과

제6궁방에서 우아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이제 제7궁방에서 누에가 나비에로의 최초의 탈바꿈은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데레사는 이것을 죽음(그것은 지고의 행복으로 죽는다)과 삶(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신다)이라는 두 개의 핵심 단어로 언급한다. 이러한 마지막 설명은 이전 장에서 말했던 ‘그 삶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와 연결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충만함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상태에 대하여 데레사가 분석한 세 폭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충만함의 상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내재하신다는 사실로 시작되고(제1장), 그리스도론적 신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지고(제2장), 우리의 시각을 낮추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적 생명을 살며, 그러한 충만함 속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제3장)에 대한 인간적 요소에 도달한다.

2. 데레사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데레사 주변에서 일어난 인간적 사건들의 다른 원천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도 개입하게 된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 대한 가장 작은 메아리조차 없다. 그녀는 그녀가 개입된 외적 세계가 아니라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내적 세계에 대하여 쓴다. 그녀는 「영혼의 성」의 이 마지막 장들을 1577년 겨울,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수방에서 쓰고 있었다. 그 도시의 다른 쪽에서, 강생 수녀원의 수녀들의 고해사제로 봉사하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곳의 많은 수녀들은 명령에 반대하여 데레사를 원장 수녀로 선출하였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즉시 제명되었다. 데레사는 그들의 경험을 강하게 체험했다. 제명된 수녀들

중 많은 이들은 마드리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은 데레사에게 투표했던 ‘불순종’ 수녀들의 배경이었다고 생각되어졌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체포로 끝이 났다.

그러나 외부에서 데레사에게 압박을 주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그녀가 쓰고 있던 이 책에 아주 작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제7궁방에서 그녀의 외부에서 일어난 것들과 내부에서 일어난 것들을 분리하는 커다란 벽이 들어선 것과 같았다. 그녀는 내적으로 많은 평화와 특히 박해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경험했고, 사실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살아서 당신을 섬기고, 고통과 시련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심지어 몇몇 해 동안 고통을 받고 가장 커다란 시련들을 받을 커다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죽음을 마치 감미로운 황홀경인 듯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3. 바네스나 그라시안과 같은 그녀 시대의 신학자들이 데레사가 이 장에서 다루는 이러한 문제를 취급했다면, 그들은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완전함은 무엇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틀림없이 그들은 초심자, 나아간 이들, 완덕에 이른 이들이라는 영성 생활의 세 가지 전통적인 단계에 따라 대답했을 것이다. 데레사는 이러한 범주에 친숙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러한 단계에 다다른 영혼의 재능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살고 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작용의 결과였다. 마지막 단계는 인간과 그리스도안의 신성의 관계의 가장 높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4. 그녀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장의 본문을 두 개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여기에도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새로운 방법의 삶(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과 친교를 맺으시는 것(신학적인 측면)이다. 본문의 첫 절반(1-8항)에서, 그녀는 첫 번째 측면을 다루고, 두 번째 절반(9-15항)에서 두 번째 측면을 다룬다. 그녀는 융통성이 없이 어떤 유형을 고수하지 않고 그녀에게 익숙한 그녀의 전형적인 자유로운 설명으로 그렇게 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잊음이 있다. “참으로 그 영혼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2항). 더 이상 어떠한 이기주의도 없다. 그 영혼이 신경을 쓰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이다. 그 영혼의 소망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영혼은 더욱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고통을 원한다. 그러나 그 영혼 자신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망이 이러한 소망을 억제하고 능가한다. 그 영혼이 죽어서 하느님을 즐기기 위하여 겪었던 과거의 모든 고통들과 시련들은 이제 더욱 당신을 섬기려는 소망으로 변화되었다.

5. 신학적 차원에서 그 영혼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과 친교를 맺으시고 그 영혼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청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친교는 너무나 부드럽고 마음속을 꿰뚫어 고통을 받았던 모든 시련들이 가치가 있게 되는 사랑의 건드림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데 게으르지 않는다면, 데레사가 「창립사」에서 대부분의 수녀들이 도달했다고 말한(4, 8), 수녀들이 합일의 기도에 도달했을 때, 하느님의 이러한 관심이 시작된다. 이러한 사랑의 자극은 우리 영혼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내적 궁방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받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쓰신 편지와 같다. 고요의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외적 행동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 영혼과 친교를 나누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성 바오로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랑의 행위로 응답하는 것은 매우 쉽다.

6. 마지막으로, 이 궁방에는 메마름이나 평화를 잃는 경험이 거의 없고, 그 영혼은 거의 항상 고요 속에 있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고, 데레사의 생각에, 악마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 궁방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 데레사는 13번에서 “누가 이러한 영혼의 평화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참된 평화” 를 주시기 전까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첫 번째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스럽게 나아가야만 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부터 힘을 이끌어내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욱 염려해야 하고, 지배인처럼 눈을 치켜뜨지 말고 당신의 자비를 청하며 가야한다.

논의를 위한 질문

1. 이제 죽는 나비의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이 궁방에 있는 영혼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3. 영혼이 합일의 기도에 다다른 이후 하느님의 관심은 어떤 것인가?
4. 하느님과 영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궁방에서 함께 기뻐하는가?
5. 그들은 여전히 황홀경을 경험하고 성인들처럼 느끼는가?
6. 영혼이 일단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시련과 고통은 없는가?

(다음 호에 계속)

(25쪽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그 여정의 마지막에 그의 본질은 흡수되지 않고 예전처럼 완전히 인간으로 남아있다(『산길』 2,5,7). 요한은 영혼을 항상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하여 영혼의 개인적 상황과 주관적 반응에 항상 세심하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신을 하느님께로 높이 올려주는 감각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한 동안 그것을 유지하라(『산길』 3,24,4). 요한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희망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는 다른 작가들이 우리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못한 목표를 우리 앞에 둔 낙관론자이다. 우리는 효과도 없는 더 낙관적인 체계를 포기하고, 대부분의 다른 영성 작가들보다 요한이 더욱 실제적이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어두운 밤 연구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3)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3. 요한은 여성의 여정의 독특함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보여주는가?

요한의 편지는 지금까지 33통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 20통은 개혁 수녀들에게 보낸 것이었고, 그 중에 2통은 일단의 수녀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8통의 편지들은 평신도 여성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영혼의 노래』는 그라나다의 수녀원장인 예수의 안나 수녀에게 헌정되었고, 『사랑의 산 불꽃』의 시와 해설 모두는 요한이 “매우 고귀하고 신심 깊은 부인” 이라고 칭한 도냐 안나 델 메르카도 이 페날로사를 위해 쓴 것이었다. 요한은 그들의 서신 왕래에 감사했고 명확한 우정으로 편지들을 썼다. 그는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했고,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솔직하게 그 자신의 시련을 그들과 나누기도 했다. 그는 그들이 개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미래의 쇄신과 성장의 토대로 보았다. 그는 그들이 영적 시련을 겪을 때 참된 애정을 보여주었고, 약해졌을 때 정중하게 권고했다. 그는 편지를 써준 모든 여성들을 정중하게 대했고, 그들의 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많은 심각한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었고, 수취인의 영적 발전 상황을 인식하고 가장 심오한 영적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요한이 그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전형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면, 여성들의 예외적인 능력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은 어떠한 성 차별도 보여주지 않았

다. 사실 그는 글을 쓸 때,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요한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는데, 그 시대에 여성들의 역할을 예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요한은 그 시대의 가장 견실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 중의 한 명인 예수의 데레사 수녀원장에게 양성되고 수련을 받았는데, 그녀는 거듭해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관구장에게 지적인 여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했고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수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방언方言으로 된 기도서를 원했다. 그녀는 필리페 2세를 포함하여 그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다. 요한에게 데레사는 훌륭한 스승이었다.

4.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가?

요한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고, 『산길』의 서문에서 영혼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여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들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신적 생명으로 이끄셔야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에 마음을 여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그러나 요한은 그 여정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금언』 5, 7, 8, 9, 11, 13 참조).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나 구절을 적용하는 데에는 언제나 유혹들이 있기에, 영적 길잡이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요한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길게 말을 하는데,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어떤 지도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두운 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분명하게 생각한다(『산길』 서문, 3-5).

요한은 이 밤들을 통해 여정을 나아가는 영혼들이 학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지기를 원했다(『불꽃』 3,30). 지도자는 성경, 영성, 신학과 영적 고전들에 조예가 깊어야만 한다. 그는 분별력이 있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는 영적 지도, 삶과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기만족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초심자와 목상의 초기 단계에는 적절할 수 있는 “만능선수”인 사람들이 있다. 요한은 그렇게 복잡한 밤들을 다룰 수 있고, “이런 문제에서 영혼들의 주된 주체적인 행위자나 길잡이나 영혼들을 움직이는 이는 자신이 아니고, 영혼들에게 결코 무관심적이 없으신 성령이시라는 사실”(『불꽃』 3,46)을 인정하는 겸손한 지도자를 찾았다. 그래서 요한은 영혼들이 영적 여정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꾸러진 방법에 애착하지 않는 지도자를 택하기를 원했다. 지도자는 그 여정의 동반자가 아니다. 동반자는 같이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혼은 그 길을 알고 오름과 내림을 이해하고 개인들이 이 여정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동정할 수 있는 길잡이를 택해야만 한다. 요한은 또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신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 여정은 더 좋거나 나쁜

지도자를 따라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피조물에 대하여 요한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요한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노래』 14-15), 피조물에 대해서는 쇠신되고 변화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하느님께 대해서는 조화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육화를 모든 피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영혼의 노래』와 『어두운 밤』은 피조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그는 조각품들과 형상들과 건축물의 진가를 알았다. 그는 춤, 음악과 사람들과의 우정도 즐겼다. 감각의 대상들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말했을 때조차 요한은 하느님을 방해하거나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느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어두운 밤의 목적은 자신에게서 어떤 대상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끝나는 그러한 소망을 없애는 것이다. 방해가 되는 것은 창조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선택권을 통제하는 습관화되고 자유가 없는 소망이다

처음에 보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조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끄는 피조물에 애착하려는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다(『산길』 1,3,4).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점은, 요한이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은 소망 그 자체가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무질서한-습성적이고 의도적이고 불완전한-물질적·영적·종교적 욕망이라는 것이다. 요한이 무질서한 욕망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하느님 대신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을 의미한다. 무^{nada}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끄는 것을 칭한다. 전부^{todo}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

리게 되는 전부이신 분이요(“사랑에 불타는 영혼의 기도” 참조.). 무질서한 욕망이 제어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님의 손”(『노래』 시 4. 14-15 참조.)이 심으신 모든 피조물을 인식할 수 있다.

6. 요한은 세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요한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 주고받으며 다루는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 그러나 요한은 그 시대의 세계적 문제들과 광범위한 인간 고통을 깊이 인식했다. 그는 스페인이 실제로 정치 세계의 중심이었고 종종 부와 제국주의와 거짓된 종교적 이유로 전쟁을 벌이던 필리페 2세의 시대에 살았다. 유럽 전역에서 벌이던 왕의 군사 활동들은 잘 알려져 있고, 요한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군비에 충당할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 필리페의 왕권과 교황권의 충돌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스페인의 신세계 확장은 물론이고 유럽의 정치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요한은 가난과 굶주림과 실업 문제도 알고 있었다. 그는 탐욕과 불의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는 “척박한 세월”이라는 두 번의 기근을 겪었고 그 결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스페인 남부 지방의 인종차별주의와 모든 지방에서 발달하고 조성되기까지 한 여러 형태의 신분제도를 보았다. 그도 박해를 겪었고 종교재판소의 통제와 심문을 받고 그 시대의 상류층의 억압을 받았다.

그렇게 요한은 그 시대의 많은 세계적 위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시대의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의 결과를 경험했고 권력자들의 부패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 요한은 그 중심에 악이 있다고 믿었다. 그가 관심을 가진 무질서들은 사람들이 이따

금씩 떨어지는 잘못이나 불완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삶과 가치 체계의 정서적 핵심에 영향을 주면서 삶을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무질서에 집중했다. 이러한 무질서들은 꽤나 평범하게 보이고, 특별한 문화나 시대에 용인될 수 있는 행동으로 정당화되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심지어 종교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어느 문화에서 이러한 종류의 경향을 본다면 우리는 심각한 무질서와 직면하는 것이다. 어느 문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부로부터 그 문화를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영성생활의 발전을 더 많은 세계적 문제들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세계적 문제들은 영혼의 영성생활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고 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한에게 어느 문화 안에 있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성생활의 발전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 세상의 악들은, 그의 시대처럼, 사랑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로서 극복되어야만 한다.

7. 요한은 자주 성경을 사용하였는가?

요한은 어두운 밤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성경일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므로, 성경을 길잡이로 삼는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산길』 서문,2). 게다가 그는 “성경의 말씀이나 혹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산길』 서문,2) 않기를 원한다. 요한은 구약을 684번, 신약을 376번 인용한다. 그는 작품 전반에 걸쳐서 성경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의 위대한 시들 각각은 탈출기 주제처럼 첫 구절에 행동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요한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원형인 성경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평범한 경험들의 상징적 표현들이다(『노래』 서문, 1). 요한은 작품 전반에 걸쳐서 자주 ‘아가’를 언급하고, 그의 시에서는 성체(성사)를 가끔씩 언급한다. 그렇게 요한이 성경을 사용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부르심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성경에 대하여 우리 시대처럼 문헌 비평적 접근을 하지는 않는다.

8. 요한은 다른 작가에게 의존했는가?

요한은 개혁 전이나 후에 가르멜 회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 시대의 신학 책과 시집을 광범위하게 읽었다. 그 자신의 작품들은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결과였다. 데레사와는 달리 그는 어떠한 작품도 출판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성 바오로의 서간들처럼, 요한은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글을 썼다. 그렇게 그의 작품은 대상이 있었고, 그래서 효력이 있었고 직접적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이들의 경험도 성찰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하여 통찰력을 보여준다. 성경에 대한 지식 외에도 요한은 뛰어난 신학자였고, 알칼라 데 에나레스와 세고비아와 바에사에서 그 시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광범위하게 공부를 했고 수도원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다른 책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요한의 동료들 중에서 두 명은 요한이 글을 쓰는 것을 보았지만 다른 책들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사랑의 사다리의 열 단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도 이러한 단계를 다루었다고 말한다(실제로 그 열 단계는 헬비쿠스 테우토니쿠스 Helvicus Teutonicus라고 불린 14세기 도미니코 회원이 썼다). 장 바루지 Jean Baruzi, 다마소 알롱소 Damaso Alonso와 크리소고노 Crisogono 신부는 다른 작가들을

연상시키는 구절들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명백하게 인용한 것을 밝혔지만, 모두 간접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요한 작품의 대부분은 완전히 독창적이다.

9. 요한은 비관적인가?

『어두운 밤』 내내 요한은 “영혼”과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주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면이 아니라 전인全人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는 영을 긍정적인 것으로, 물질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영과 물질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이란 일상생활의 평범한 환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요한의 방식이다.

요한이 감각과 영을 언급할 때에도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정적靜的인 구분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역동성 안에서 본 것이다(『산길』 1,6,2). 사람은 이기적인 가치에 이끌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가치에 이끌린다. 요한은 인간의 본성보다는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조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비관론자가 아니고, 인간성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의 설명은 용기를 잃게(『산길』 1,6-10. 3,19; 『밤』 1,2. 2,2)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현실을 반영한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합일하라는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들은 정말로 나쁘다. 요한은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와 관련하여 영혼들을 묘사한다.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 자신의 상황이 나쁘고 건강하지 못해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다(『산길』 1,9,3).

(21쪽으로)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귀양살이 하소연 Ayes del destierro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 | | |
|--|---|
| <p>1. 님하 그대 없는 살이
어이 이리 애달픈고
그대 몹시 보고만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p> | <p>그대 곁에 있는 것이
님하 어인 행복인고
그대 몹시 보고만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p> |
| <p>2. 이승살이 예는 길은
너무나도 장찬 길을
고달피 드새는 자리
지긋지긋한 귀양살이
이곳에서 날 건지소서
사랑흠는 내 임자시여</p> | <p>5. 세속엿 사랑을랑
이승에 애바르고
천주엿 사랑을랑
저승에 애바르고
영원하신 하느님하
당신 없이 뉘 살으오리
그대 몹시 보고만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p> |
| <p>3. 눈물겨운 세상살이
더 없이 쓰거워라
그대에서 먼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어라
좋을시고 내 행복이여
박복할손 이 내 몸을
당신이 보고지워
죽고지고 죽고지고</p> | <p>6. 세상살일랑
잇달은 고생
참스런 삶일랑
천당에만 있느니
거기 가 살아지기
내 님하 허락하시라
그대 몹시 보고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p> |
| <p>4. 고맙다 죽음이여
내 시름을 덜어다오
달근달근 내 채찍이
내 영혼을 살린단다</p> | |

7. 몸뚱이 시어짐을
 무서할 이 그 누구라
 다함 없는 행복을
 그로써 얻는다면
 옳도다 내 하느님
 영영 당신을 사랑함임을
 그대 몹시 보고지워
 죽고지고 죽고지고
8. 서러운 내 영혼
 울다 울다 기진한다
 뉘라서 제 님 두고
 외오 살 수 있을런가
 아서라 말어라
 못 견딜 이 상사(相思)야
 그대 몹시 보고지워
 죽고지고 죽고지고
9. 꾀 많은 뉘시질에
 뉘아진 돌잉어도
 죽어지면 그 고생도
 끝장을 보고 마는 것
 나는 아으 그대 없이
 못 살겠노라 내 사랑아
 그대 몹시 보고지워
 죽고지고 죽고지고
10. 쓸 데 없이 내 영혼이
 님하 그대를 그리노니
 매양 아니 보이는 그대
 타는 애를 어이 꺼주리
 마음 속 타다 못해
 굼기야는 터지고 말으리
 그대 몹시 보고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
11. 그대 내 가슴 안으로
 드옵실 날 언제일런고
 그 순간 행여 내 님하
 그대 여윌까 두려워라
 이 걱정에 맘조려져
 말씀 올리게 되옵나니
 그대 몹시 보고 지워
 죽고지고 죽고지고
12. 지루도 한 이 괴롬을
 주여 끝나게 해주소서
 당신으로 할딱이는
 이 종년을 돌보소서
 쇠사슬을 끊어주소서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대 몹시 보고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
13. 아니 아니로소이다 사랑하는 님이여
 괴로움을 참는 것이 내겐 마땅합니다
 내 허물을 기워잡고
 무수한 내 죄를 속해야겠습니다
 내 눈물 보람이 있어
 제발 그대 들어주셨으면
 그대 몹시 보고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를

해설

이번에 소개하는 성녀의 시 역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간간히 나오는 고어(古語)나 예스런 말투, 그리고 현대의 맞춤법이나 어법(語法)과 다르게 쓴 낱말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녀가 지극히 사랑하는님이신 하느님께 절절히 탄원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역자의 시적인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예전부터 ‘상사병(相思病)에는 약이 없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이시를 읽다보면 지극히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생이별 한 후, 곁에 없는님이 그리워서 몸부림치는 세상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한 여인을 상상하게 되는데, 성녀는 그와 꼭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혹은 하느님의 부재(不在)를 실감하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하소연하고 하루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날을 고대하며 사무치게 그리워한다.

시의 첫머리에 ‘님하 그대 없는 살이/어이 이리 애달픈고’ 하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느님이 정작 자신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하소연의 노래는 구구절절이 이어지는데 ‘그대 몹시 보고만 싶어/ 죽고지고 죽고지고’ 하면서 호소하는 말로 시의 각 연의 마무리마다 이어질 후렴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대가 너무나 보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하고 되풀이하면서 절규한다. 1연의 첫머리에 나오는 <님하>는 <님아>의 존대어로서 <님이여> 혹은 <님이시여>의 옛말이고, 2연의 <예는 길은>의 <예다>는 <가다>의 옛말로서 <가는 길은>으로 읽으면 되고, <장찬 길은>의 <장차다>는 말은 <거리가 꽤 멀다> 또는 <시간적으로 길고 오래 걸리다>라는 뜻이므로 <머나먼 길은>으로 알아들으면 되고, <사랑흠는>은 <사랑하

는>의 경어로서 <사랑하옵는>의 변형으로 보면 된다. 4연에 <달근달근>은 <자주자주>라는 뜻도 있고 <달근달근하다>라는 형용사는 <재미있고 탐탁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로 쓰인 것 같고, 5연에 <세속엿 사랑을랑>은 <세속엿 사랑일랑>의 변형으로 <세속적인 사랑은>으로 읽으면 되고 <이승에 애바르고>에서 <애바르다>는 <이곳을 좇아 들퍼들이 발발다>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바른 이치이다>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7연에서 <시어지다>는 고어(古語) <식어디다>의 변형으로 <물 새듯이 없어지다>라는 뜻이고, <무서할 이>는 <무서워할 이>의 준말이다. 8연에서 <외오 살 수 있을런가>는 <홀로 살 수 있을런가>로 읽으면 되겠다. <아서라 말어라>는 <하지마라 그만뉘라>의 옛날식 표현이다. 9연에 <아으>는 깊은 슬픔을 당했을 때 터져 나오는 감탄사로 <아아>의 변형이다. 그리고 7,8,9,11연에 네 번 나오는 <그대 몹시 보고지워>도 <그대 몹시 보고 싶어>의 변형이다. 그리고 11연에 나오는 <드옵실 날>은 <들어오실 날>의 준말이면서 시적 표현이다.*



* 선교 *

당신 가신 길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당신 따라 나서는 길
때론 홀로 때론 함께
걸다 다시 혼자되면
발끝에 선명해지는
앞선 발자국

가시덤불 이겨내고
자갈길을 넘어가면
걸음조차 내가 되는
당신 따라 나선 이 길

미련들이 발을 적셔
온 힘으로 걸어갈 때
당신 감싼 바람 불어
사뿐히 가벼워지는
행복의 이 길
당신 가신 길.

(당신 가신 길-이 로물로 작사)

중국선교의 소명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대만에서 공동체를 이뤄 살기 시작하여 겨우 1년을 채워갈 무렵 여행비자 기간이 다 차서 작년 4월에 잠시 귀국한 이후, 대만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경한 정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기세는 점점 거세어지다가 최근에 선진국들로부터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조금은 그 기세가 꺾이는 듯하지만,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다시 창궐하여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언제라도 대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풀릴 날만 기

다리며 인천 수도원에서 대기하면서, 현재 여기서 특별한 소임이 없는 나는 수도생활 44년 중 가장 한가롭고 여유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끔 외부의 발일이나 정원관리를 도와주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들을 한가하게 많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화방송에서 몇 년 전에 제작하여 YouTube로 보여주고 있는 특별기획 <미션>과 <미션2>라는 큰 타이틀 아래 수십 편 이어지는 해외선교 시리즈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를 지망하면서도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가 참으로 많았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교회로부터 인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던 한국교회가 어느새 성년으로 성장하여, 성직자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평신도까지 동참하여, 현재 2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교회를 돕고 있으니, 날로 발전하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다.

<특별기획-미션>에서 먼저 소개하는 내용은 그동안 한국 교회 내에서 활동해온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 모습이나 그분들이 전하는 선교에 대한 경험담들을 통하여, 과거 어려웠던 한국의 사회상이나 신자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 사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청년 사제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유교의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안동교구에서 한 평생을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엄혹한 유신시대에는 교구 내의 가톨릭농민회에서 활동하다가 구속된 신자를 풀어내기 위해 애쓰다가 워정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추방당할 뻔한 주교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생을 통해 이 땅의 민중들을 사랑하신 선교사로 사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여 평범한 촌 노인처럼 살고 계신 <파리외방선교회> 소속의 <두봉 주교님>이신데, 소탈하고 인자하시면서 서민적인 모습은 언제 봐어도 재미있고 정(情)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산청의 <성심원>에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한센인들의 벗이 되어 한평생을 웃는 얼굴로 그들과 어울려 살고 계신 <작은형제회> 소속의 <유의배 신부님>과, 또한 가난한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으로 한평생 살고 계신 <살레시오회>의 <모지웅 신부님>, 그리고 평신도 신분으로 <사도직협조자>회원으로 젊은 아가씨 시절에 한국에 와서 대구대교구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시며 정다운 친구 할머니로 살고 계신 <양수산나 마리아 자매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름부터 한국식으로 바꾸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한국인들과 친구처럼 어울려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계명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하신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일생을 통해 바로 이 시대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교> 시리즈는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펼치고 있는 선교활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데,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오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각양각색의 원주민들과 어울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간단한 의료행

위나 사회복지 또는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 그 뒤를 이어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남수단의 톤즈에 있는 <돈보스코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변화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영상에는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아름다운 가락의 성가를 많이 작곡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원선오 신부님>이, 90세가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선교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애쓰시는 모습도 잠시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늘 함께 다니시는 <공 야고보 수사님>과 1980년대에 한국의 교회 사정이나 <돈보스코센터>가 안정이 되어갈 무렵에, 한국보다 더 열악한 아프리카로 가서 수십 년째 봉사하고 계신다.

<선교2> 시리즈에서는 낭랑하면서도 마지막 주제곡 노래 소리와 함께 첫머리에 소개한 <당신 가신 길> 가사가 자막으로 뜨는 가운데, 한국천주교회의 몇몇 교구와 <한국외방선교회>와 <콜롬반선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중남미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준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A,B,C 3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비롯하여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비슷하게 빈곤하고 열악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같은 교구에서 파견된 젊은 사제들이 선교활동지역은 다르면서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남녀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정을 이루어 현

지에서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 준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처럼 사제나 수도자들 곁에서 도와주면서 평신도 신분으로 독신자로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많지만 그들과 떨어진 오지에서 홀로 살면서 이웃 주민들과 어울리는 선교사들도 있다. 어쨌든 그들 평신도 선교사들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나 활동 공간으로 들어가 그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리아회> 수녀님들이 대도시의 변두리에서 <소년의 집>이나 <소녀의 집>을 운영하면서, 신앙 교육 외에도 양질의 일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가난한 청소년들의 엄마가 되어 그들과 어울려 살며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남미 지역은 이미 5백 년 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에 의해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파되어 주민의 대부분이 가톨릭신자들이지만, 근래에 유럽 교회가 쇠퇴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선교사들을 보낼 수 없어서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제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신앙은 성사생활도 없이 그저 전통이나 문화로만 남아있어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하는 활동은 선교라기보다는 재복음화의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본 <선교> 시리즈 수십 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아 온 그 어떤 책이나 영화, 그리고 피정이나 강론에서 받은 것보다 많은 영적 보화와 양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동안 별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기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선교는 do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선교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현지의 주민들에게 자신이 기쁘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느님이심을 느끼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 말은 결국 선교사가 얼마나 성화(聖化)되느냐에 따라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인데, 선교사가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 글을 끝내면서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자. <현대의 복음선포>라는 문헌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다르며, 왜 저렇게 사는 것이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 없는 증거는 복음을 힘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된다. 복음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21항>

그리스도의 기쁨 속에 열성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신 선교사일 때 하느님 나라는 선포되고, 세계 속에 교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80항 > *



* 스카폴라

기적의 스카폴라

가브리엘 구나세이카라 신부(Father Gabriel Gunasekera O.C.D.)
관구 참사회 옮김

기적의 스카폴라를 수여함으로써 복되신 성모님과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 사이에 쌍방 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모님 편에서는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를 보호하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 줍니다. 스카폴라 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며 그분의 덕을 따르고 효심도 키우고 어디서나 항상 스카폴라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속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기적의 스카폴라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보속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보속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데, 특히 보속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內住)하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피신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애쓰십니다.

성모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입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내적 침묵을 지키며 자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침묵으로 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우정과 친밀함을 효과적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보속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속하는 방법은 자아포기나 절제, 피조물로부터의 이탈도 있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사랑으로 작은 희생을 하고 봉헌을 하는 것도 보속입니다.

복되신 성모님은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도움을 주십니다.

1. 천상 은총의 어머니: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적의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자에게 성화 은총을 크게 해주셔서 더 거룩해지고,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기적의 스카폴라를 착용한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상의 업무를 이행하며 살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2. 모든 덕의 어머니:

성모님은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가 덕을 쌓아 실천하도록 이끌어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3. 내적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받은 분이어서 당연히 선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성모님은 스카폴라 착용자들의 영혼에도 좋은 성향을 주셔서, 그들이 사랑으로 드리는 내적인 침묵의 기도를 좋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실 것입니다.

4. 내적 고독의 어머니:

성모님은 거룩한 내적 고독의 덕목에서 최고에 이르신 분입니다. 내적 고독은 영혼이 거룩한 정신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살도록 해줍니다. 성모님은 스카폴라 착용자가 내적 고독을 추구하고 일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 거룩한 정신을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5. 관상기도하는 영혼들의 어머니:

성모님은 천상의 보화를 관리하는 분으로서 관상기도의 은총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아십니다.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가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관상기도의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르멜의 성모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겸손하게 노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6. 묵상하는 영혼들의 어머니:

풍성한 은총과 은사의 놀라운 영향으로 복되신 성모님은 어떤 것에도 묵상의 덕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내적 기능과 외적 감각이 차분하고 평온하며 조용한 성향을 누리고 계십니다. 기적의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사람은 묵상의 덕을 얻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가르멜의 성모님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 길을 닦는 데 많은 일을 해주십니다.

7. 기도를 격려하시는 어머니:

기도는 내주(內住)하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혼이 가능한 한 자주 사랑과 애정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복되신 성모님 사이의 사랑과 애정은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모든 피조물 위에 두고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것, 특히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들이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계속해서 사랑과 애정을 나누도록 하는 것을 당

신의 의무로 생각하십니다.

8. 보속을 장려하시는 성모님:

보속하지 않는다면 내적으로 고요히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없고, 내적으로 고요히 사랑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보속할 수 없습니다. 보속과 기도는 함께 가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르멜의 성모님은 기적의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사람이 자아를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봉헌하며,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침묵을 지키고 피조물 및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힘껏 격려해줍니다.

9. 봉헌을 격려하시는 성모님

가르멜의 성모님은 사랑으로 행해진 작은 봉헌과 희생의 천상의 가치를 아십니다. 나자렛에서 성모님의 생애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거룩한 아드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작은 봉헌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적의 스카폴라 착용자가 작은 봉헌과 희생 및 관대한 자기희생을 통해 완전하고 섬세한 사랑을 하도록 성모님은 계속해서 격려하며 인도해줍니다.

10. 절제를 고무하시는 성모님:

절제는 일종의 보속이라 할 수 있는데 영적 진보에 죄가 되고 해로운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도록 영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점진적이고 더 깊은 우정을 맺기 위해 외부와 내부의 과도한 욕망과 성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르멜의 성모님은 절제 행위, 특히 자아 부정의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스카폴라 착용자들이 절제를 하도록 고무하십니다.*

『가르멜 성모님의 기적의 스카폴라』(가브리엘 구나세이카라 신부 Father Gabriel Gunasekera O.C.D.) 중에서

* 공동체 이야기 *

은총이 넘치는 기쁨의 삶

상주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상주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는 1998년 2월, 15명의 회원이 박종인 라이문도 지도신부님을 모시고 첫 모임을 갖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 모임을 시작하였다.

1998년 4월 18일 안동 교구장이신 고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 장석훈 베르나르도 준관구장님, 박종인 라이문도 지도신부님을 모시고 회원 12명이 창립 총회를 개최, 초대회장으로 김정숙 도미니카 자매가 선출되었다. 저희 공동체는 남북으로 흐르는 상주시 내서면 이안천이 수녀원의 허리를 감아 흐르고,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소머리산으로 불리는 윤지미산 기슭에, 1996년 5월 23일 창립한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재속회원 29명이 가르멜 영성으로 형제애를 나누며 매월 첫째 주일 월모임을 가진다.

현재 회원 숫자는 비록 적지만 경북 내륙 깊숙한 산속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르멜 영성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저희 공동체는 상주시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깊은 산속 가르멜 수녀원 외딴곳 피정의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서, 대중교통이용이 불가하여, 회원들의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상주, 문경, 영주, 안동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늑하고 고적하며 아름다운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의 월모임은 가르멜 영성을 익히고 배우기에 너무나 적합하여 회원들의 마음은 시골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닮아 영적 물적 나눔의 정이 어느 공동체보다 따뜻하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원장수녀님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월 모임 저녁 성무일도는 수녀님들과 함께 성당과 가대소에서 마주 보며 노래로 함께 바쳤다. 가르멜 수녀님과의 한 가족 됨을 알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공동체이다.

2015년 3월 28일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에는 교구장님을 모시고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에서 안동교구 신자들을 초대하여 가르멜의 향기를 전할 수 있었다.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두 분의 수녀님께서 선종하셨을 때에는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수도원에 모여 연도 및 미사 등 전례봉사와 손님 안내 등에 기여하여 모두가 하나 됨을 느끼고 깊이 새기는 은총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안동 교구는 경북 북부지역 농촌의 작은 교구이지만 상주에서 여자 가르멜 수도원 창립과 함께 재속회도 창립되어 평신도도 가르멜 영성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매년 5월 야외 월모임, 9월 연피정의 일정으로 회합하고 있다. 회합 중 점심 식사는 각자 도시락을 마련하여 회합실에서 함께 나눔(코로나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으로써 한 숟밥을 먹는 한 식구임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차고 가족 같은 공동체이다.

또한 회원들 각자의 사정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어느 친형제보다도 가정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친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축복받은 가르멜 재속회이다.

월모임날 차를 수도원 아래 주차장에 주

차하여 두고 100여 미터 떨어진 가파른 언덕길인 모임장소로 올라 갈 때면 저절로 스스로가 가르멜 산길을 올라감을 느낄 수 있는 선택받은 재속회인 것 같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월모임도, 구역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회원들은 단체 특으로 서로의 안부와 축일을 챙기면서 새로운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가르멜 및 교회 기념 축제일에는 수녀원과 함께 물적 영적 친교를 나누며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있다. 종신 서약 등 재속회의 기쁨과 슬픔도 수녀님들

과 함께 나눔으로써 풍요로운 가르멜 영성을 살아가고 있다.

지원자 초대는 주로 교구 주보지와 회원들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매년 3명 정도의 지원자가 가르멜 재속회원으로 초대되고 있다.

상주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회원들은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수녀원의 환경 속에서 월모임을 가짐으로써 열린 마음과 소박한 삶으로 은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2. 도착 (2018년 4월 30일 부활 제 5주간 월요일) 한국(인천국제공항) - 체코(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프라하의 봄

우리 일정의 시작은 프라하 Praha/Prague. 도착하기 전, 중부 유럽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내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픔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1968년에 있었던 사건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뒤부터일 것이다. 흑백의 흐린 영상은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화면 속에선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강가에서 공개 처형 당하면서 강물 위로 툭, 툭, 떨어지듯 쓰러지고 있었다. 흑백 화면은 종잇장 같은 그들의 창백함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주었다. 자국민들이나 외국 기자들이 찍은 영상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그나마 남겨진 자료였을까. 강둑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오열하면서 땅에 주저앉고, 공포에 질린 군중들이 검은 숲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시기 희생된 이들은 어렵잡아 50만 명이였다.

자유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대의 가치이고 하느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다.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은 하느님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하느님이 당신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인간의 존엄을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이고 바로 그렇기에 지켜져

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전략) 십자가는 인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느님을 살해할 정도로 인간의 자유는 존중된다. 따라서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십자가 신비’ p80,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 지음)

앞으로 우리가 순례하는 동안 만나게 될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끔찍하게 훼손된 이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성녀이다. ‘프라하의 봄’을 떠올리면서 우리 일정에 놓여 있는 아우슈비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똑같은 이유로 훼손당한 인간의 자유가 많은 선량한 이들의 끔찍한 공조와 침묵 속에서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11시간의 긴 비행의 끝은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이었다. 공항 주변 풍경이 가까워질수록, 인근 마을 풍경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질수록, 길게 끼었던 안개 걷히듯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들판 가득 노란색 물감을 뿌려 놓은 것 같은 풍경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공항 주변을 감상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게 설마 유채꽃은 아니겠지요?”

“이 나라 사람들이 배추김치를 담가 먹진 않을 테니 유채꽃만은 아닐 듯싶어요.”

“그런데 왜 색깔은 우리나라 유채꽃 편들판과 저렇게도 흡사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저 노란색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프라하의 유채꽃 들판

프라하는 그렇게 끝없이 펼쳐진 노란 들판과 녹지대, 그리고 오래된 유럽 도시 특유의 낮은 건물과 붉은 지붕으로 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오후 5시가 가까운 시간임에도 우리나라 2시 정도의 강렬한 햇빛이다. 그러는 사이 내 머릿속은 정서의 배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한국에서 막연히 상상하던 무채색의 어두운 프라하는 11시간의 비행으로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총천연색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내가 아는 프라하는 어디에...?’ 내 안에서는 흘러던 눈물을 그치고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에 놀라 두 눈을 꿈뻑거리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뒤 곧바로 우리를 기다리던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 나오는 사이에도 들판은 온통 노란색 향연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들판에, 농사는 짓지 않고 꽃으로만 장식을 하는 것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대기가 한없이 맑다는 것이었고 모두들 대번에 알아차린 그 사실에 서로 서로 말을 섞어가면서 부러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황사와 전쟁 중인데 여기는 대기가 무척 청량하니 이게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와의 첫 인사를 마친 가이드 자매님이 무심하게 던진 몇 마디에

그 답이 있었다.

“여러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노란 들판은 무엇일 것 같나요? 우리나라 유채꽃 같이 생겼지요? 네, 맞습니다. 유채꽃이에요. 여기 유럽 사람들은 지금 유채 꽃에서 대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친환경적 정책의 일환이지요.”

‘친환경 정책.’ 선진 정책의 대명사인 유럽에서 대체 에너지의 원재료로 유채꽃을 키운다니. 유채밭은 우리 여행 내내 유럽 곳곳의 온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들판에 보이는 것은 초록이 아니라 노란 유채밭뿐이었다. 지금 보고 있는 노란 유채꽃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나중에는 들판 가득 피어있는 민들레로 환원될 것이다. 유채꽃과 민들레.

유럽의 인상은 노란색으로 시작되었다. 한 시간쯤 달려 짐을 풀기도 전에 우리는 첫 목적지에 도착했다.

프라하의 아기 예수

프라하 ‘말라 스트라나 Malá Strana’에 있는 ‘승리의 성모 가르멜 수도원’에 모셔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시간은 촉박한데 버스에서 내려 10여분을 걸었다. 고도(古都)의 좁은 길 탓에 커다란 버스가 쉽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였다. 도로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트램(tram)이라 불리는 노면전차, 뛰다시피 걷던 우리의 시선이 잠시 멈춘다.

“나는 저 노면전차를 선물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노면전차 역시 전기로 운행되는 것이라 일반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행 끝나고 집에 갈 때 호주머니에 넣어갈라고요.”



승리의 성모 가르멜 수도원 성당
(프라하의 아기예수님 상 앞에서)

좁은 인도를 달리다시피하면서 걷는다. 저녁 7시까지 문을 연다는 가르멜 수도원 성당. 시간을 보니 겨우 5분 남짓 남았다. 유난히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았다. 공항을 출발하여 이곳으로 오는 차 안에서, 신부님이 기계음으로 '프라하의 아기 예수'에 대한 인터넷 정보를 들려주셨다. 스페인 어느 수도원의 한 수사에게 발현했다는 것과, 그 수도원의 신심 깊은 요셉 수사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나타나신 아기 예수님의 부탁으로 이 밀랍 인형의 아기 예수님을 실물과 똑같이 제작하였고, 제작을 마치고 동시에 요셉 수사가 평화로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일련의 이야기가 대략의 기원이었다. 발현 당시의 내용을 보면 아기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 요셉 수사에게 성모송을 읊어주기를 부탁했고, 이 아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요셉 수사는 그 때 당시의 아기 예수님을 '유난히 우아한 세 살배기 아기'라고 말한다. 요셉 수사가 외우고 있는 성모송을 듣고 있던 아기가 그 '태중의 아기가 바로 나'라고 밝히는 순간, 그리고 바로 사라져 버린 순간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우리는 이번 순례 기간에 성모님의 발현

장소에 갈 예정이다. 모든 천상의 발현. 모든 천상의 발현은 인간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맞닿아 있다. 인간을 향한 천상 애달픔의 달음이다. 천상의 눈길 달음이고 천상의 마음이 내려온 길이다.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 가르멜 안에 머무르시고자 고통스러운 긴 여행을 한 후 1655년 4월 성대한 대관식을 거쳐 지금은 프라하 승리의 성모 가르멜 수도원에 모셔져 있다.

대로변 계단 위쪽에 위치한 성당에 도착하여 눈길을 올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당 벽면의 커다란 가르멜 문장. 우리 사이에 작은 탄식이 오갔다. 프라하 아기 예수님이 가르멜 안에 머무르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반가웠다. 사모 데레사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데레사의 예수다'라고 그 사랑을 전하셨던 아기 예수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숨 가쁘게 달려온 이유가 이 고운 아기 예수님을 뵈고 인사드리러 온 것이었다니, 우리 순례의 시작에 함께 하시겠다 기다리고 계신 고운 아기님.

안으로 들어서자 중앙 제대는 공사 중이어서 흰 천으로 장막을 드리웠고, 중앙 제대 오른쪽으로 흰옷을 입은 아기 예수님을 높이 모신 다른 제대가 있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가르멜 수사님은 우리를 성당 옆 별실로 안내한 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다. 가르멜 수사님이 우리 지도 신부님께 제대 중앙 위쪽에 모셔진 아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작한 아기 예수님을 안겨드렸다. 순간적으로 신부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주모경을 정성껏 바친 후 각자의 지향을 담은 기도문을 작은 바구니에 담고 흰색 옷을 입은 아기 예수님을 안은 수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 대성당으로 나왔다. 수사님은 녹색 대관복을 입은 아기

예수님 사진을 나누어주셨다. 사진 뒷면에는 프라하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한글로 적혀 있다.

별실을 나와 제대 높은 곳에 모셔진 흰 옷의 아기 예수님을 향해 기도한 후,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지금은 그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진으로, 기도로, 안간힘을 다해 당신께가 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진정 당신을 뵙게 되는 날, 우리는 이 모든 허울을 걷어내고 당신께 곧장 날아갈 수 있으리라.

너무나도 짧았던 갑작스런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는 프라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해가 많이 기운 서늘한 거리, 초록은 짙고 풀 섞에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사랑스럽다.

“오, 아기 예수님, ... 저는 저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진심으로 저의 죄를 뉘우치며 청하오니, 착하신 예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결코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을 것을 결심하오며, 당신을 슬프게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참아내기로 결심하나이다. 이제부터 충심으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오,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 저는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겠나이다...” (아기 예수님께 바치는 짧은 개인 9일 기도 중에서)

순례지 첫 식사는 멀리 프라하 성이 보이는 언덕 위 식당에서 이뤄졌다. 언덕을 오르내리며 손님을 실어 나르는 빨간색 트램을 탔다. 트램에서 내려 다시 긴 계단을 오르면서 모두가 감탄한 것은 멀리보이는 프라하 성. 프라하 초기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의 성이라고 한다.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프라하 어디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프라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곳의 비투스 성당과, 많은 신앙인들과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는 스테인드글라스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일정상 가질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쳤을 때, 멀리 보이는 프라하 성은 황금빛 조명으로 휘황찬란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숙소를 향해 달리는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날 때에도 멀리 프라하 성이 배경으로 보였다.

다리 아래 프라하를 동서로 가르는 블타바 강The Vltava은 프라하 구시가지에 있는 ‘카를 대교’로도 유명한 강이다. 나중에 그 유명한 ‘몰다우 강’을 한 순간에 지나치고 말았다는 자괴감에 들게 한 블타바 강. 스메타나의 그 유명한 연작 교향시 ‘나의 조국’에 나오는 ‘몰다우 강’이 바로 그 블타바 강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연인을 향한 듯 강하고 애절한 가락이 조국의 강을 빗대어 지은 교향곡이라 쉽게 연상 지을 수 없었던 그 곡의 주인공.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던 조국의 독립을 음악에 호소한 작품으로 스메타나가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 작곡해낸 명곡이다. 몰다우가 블타바의 독어 발음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곡명을 ‘블타바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작곡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도 든다. 블타바 강의 카를 대교 밑에는 커다란 스메타나의 동상이 그를 기리는 기념관 앞에 있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발현 때마다 그토록 많은 기도를 부탁하시던 소련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1993년 1월 1일,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오랜 시간 억지로 합체되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2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프라하 밤거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아프고 힘든 역사를 건너와 평화로운 일상 안에 잠긴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프라하 아기 예수님께 은총과 평화를 기도했다. 우리 버스는 프라하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을 향해 밤길을 달린다. (다음 호에 계속)

* 회원의 글 *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손주 자라는 돈을 내놓고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누구든 '아가'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뿐 아니라 온몸이 환해지니 그렇게 자랑으로 들리는가 보다. 또 하나, 누구나 어린 시절은 있었기에 아가는 고향처럼 엄마처럼 그리움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여성 상위시대인 요즘, 아들 둔 엄마들은 속이 탄다. 그럼에도 딸 역시 눈에 차는 남편감이 쉽지 않으니 혼기를 놓치기가 십상이다. 예전보다도 결혼조건은 더더욱 까다로워졌다. 불균형한 성비(性比)도 문제가 된다. 서로 간의 경제적, 문화적인 정서도 짚어 보아야한다. 권리는 주장하고 의무는 건너 뛰어야한다. 또 흥분분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으로 인해서 가족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는 데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은 싫단다. 받을 마음만 가득하니 결혼은 사랑의 열매가 아닌 멍에가 되어 버렸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21~23에서 신비로운 결혼식을 하신다.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사람이 찾지 못한 안성맞춤의 협력자를 찾아 주신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결혼은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오래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지루하다는 등 가끔씩은 외식을 해야 한다는 등. 비정상이 정상을 덮어가는 세상... 그러고도 마땅치 않아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가 어디 뜻대로 되는 일인가?'하고 합리화시킨다. 과도기의 부산물로 '자발적 비혼모'라는 묘한 행위도 생기니 결혼은 거부하고 아가만을 얻고자 한다. 이렇듯 아가들은 기쁨으로 사랑스럽다. 뱃속에서 꼬물 꼬물, 뒤집고, 걸음마하고 아장아장 넘어질

듯 자빠질 듯 뒤뚱대는 모양까지도.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다. 활동적인 모습이 산만해서 ADHD증후군(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을 떠올리기도 할 정도로 건강한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이 크면 도리어 의젓이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 번 변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소중한 귀엽다. 끝의 내 손자 놨은 참 곰살갑고 씩씩하다. 가끔씩 보고 싶어 전화를 한다. 언제나 사랑이 고픈 나는 "할머니, 사랑해요."를 되돌이표로 청한다. 이 녀석 대답이 재미있다. "어차피... 그런데 할머니는 왜 자꾸 자꾸 물어봐요?" 아주 의젓하게 되묻는다. 요즘 아이들 참 대단하다. 단어 사용법이 똑 부러진다. 매번 듣는 말이 매번 똑 같으니 듣기 싫다는 뜻이다. 그래 맞다. 요 녀석이 할머니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귀찮은 것은 귀찮다는 말이다.

위로 두 녀석은 언제부터인지 뽀뽀도 안 한다. 꽤나 오래된 듯하다. 요렇게 할머니하고 맞장 뜨고 놀이하는 것도 한두 해면 끝나겠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심어주려고 명절이면 열심히 웃놀이며 공기놀이를 함께한다. 한동안 지난 뒤에 내가 모르는 척 "웃놀이 어떻게 하지?"하고 웃판을 내 놓으면 요 녀석, 하나하나 실제로 던져가며 설명을 해준다. "할머니 요건 '도'구요, 요렇게 두 개 뒤집히면 '개'구요." 얼굴을 쳐다보며 할머니가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며 일러 준다. "요렇게 되면 '뺨도'구요. 한 번 뒤로 가는 거야요." 참 친절도 하다. 흰머리도, 할머니 앞니도 이상한 거는 다 물어본다. "아! 그래서

할아버지 머리도 그럴구나.” 아들보다 손자 녀석이 더 내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

또 함께 놀아주는 코너가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꽤 말귀도 잘 알아듣는다. 그러다가 재미없는지 한마디 한다. “뭐 그렇게 쉬운 거를 내요?” 제법 까불기도 한다. “요거는 선생님하고 나만 할 줄 알아요.” 시계도 어지간히 볼 줄 안다. “할머니 전화한 지 벌써 52분이나 됐어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만 끊어야겠어요.” 어느 날은 하는 말이 재미있다. “할머니 5시 반뿐이 안됐는데 엄마가 벌써 저녁 밥 먹으라네요.”

그 녀석 본지 오래라고 코로나 덕분에 잠깐 두父子가 찾아왔다. 궁금한 거는 나도 물어보아야 한다. “민규야! 할머니하고 전화로 나누기, 곱하기 하는 거 재미있니?” 요 녀석 싱글싱글 웃는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벌써 예감이 불길하다. 물어 본 내가 구차스러워진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싫어요. 흐응. 그래도 할머니하고 팔씨름하는 건 재미 있어요.” 예구머니나 이런 이야기는 안 물어보는 것이 나운데. 궁금한 것 좋아하다가 내 발등을 내가 짚었구나... 내가 눈높이를 어찌 맞추어야할지. 게임도 못하니 말이 안 통한다. 어찌나, 슬픈 할머니다.

어려서부터 ‘뱃구레’가 커서 먹성이 좋았다. 보행기타고 다닐 때도 어미가 우유타는 것을 보면 보행기에서 좋다고 팔작팔작 뛰던 녀석이였다. 이날도 귤, 사과 등 과일을 번갈아 가며 다 먹어치우고 과자도 열심히 먹는다. 이렇게 먹성이 좋으니 요 녀석 힘이 점점 더 세 진다. 팔씨름은 재미가 있다니 그나마 다행. 아직은 더 데리고 놀만하다. “이제 늦기 전에 가야지.” 하며 아비가 일어나서니 따라선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서 하는 말이 “할머니, 먹다가 좀 남았는데, 과자 좀 싸주시면 안돼요?” 시치미 떴고 싱글거리는 이 녀석, 참 성격 좋다. 누굴 닮았을까.

우리가 이사 오던 그해 저녁, 5살 때 저녁 식사 후, 운정 호숫가 찻집에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저쪽에 있던 녀석. 할아버지한테 말없이 살며시 다가선다. ‘아니, 재가 왜 이리 올까’ 세상에나 글썸! 아이스크림을 한 수저 듬뿍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 드린다. 신통한 제 모습에 저도 흐뭇하니 웃는다. 아! 어찌 사랑스럽지 않을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귀염둥이 아가야!!

성경속의 **아가서(雅歌書)**를 우리는 ‘**노래 중의 노래**’라 또는 ‘**솔로몬의 노래**’라 칭한다. 중세 신비주의는 다윗왕조 때 써진 이 책을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간의 사랑에 적용하여 해석했다. 어찌 달디 단 주님의 사랑을 이리 아름답게 쓸 수가 있었을까. 그 사랑이 우리 아가처럼 댁다 큰가보다. 아가서의 주님이 그리워진다. 제대로 못 따르면서 왜 내 맘껏 안 해 주시는지를 계속 짓조르고 기다릴 여유 없다고 심술부린다. 나는 지금도 철이 없다. 기다림의 영성, 그 역시 모자란다. 무엇이든 내 양이 안 찰 때는 “사랑한다” 했던 말을 “몰라”로 바꾼다. 틈만 나면 뿔난 망아지처럼 이리 저리 받아치는 버릇 없는 내가 된다.

우리 아가의 재롱은 몇 년을 못가겠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날개 짓은 태산처럼 크고 무궁하면 참 좋겠다. 성인·성녀들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 자식 사랑에 안기려 내님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걸음삼아 다가간다. *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오늘 하루의 기적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 서울 성 요셉 공동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 한해를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와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셨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사랑의 기쁨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힘겹게 가정을 지켜가는 이들에겐 숙제처럼 여겨질 터다. 내게도 가정은 함께 기도하며 지켜내야 하는 광야의 장소였다.

방송작가로 치열하게 살다 병이 들어 주저앉았던 그 시절, 가족구성원이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마치 나만 존재하듯이 홀로 애썼던 그 시간의 몸부림 속에서 내 가정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병든 나, 절망에 빠진 남편, 불안한 두 딸! 누구 하나 객관적으로 물러서서 서로를 보듬어줄 여력이 없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얽히고설킨 실타래였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했던 나는, 가르멜의 흑독한 정화 여정과 맞물려 죽을 것만 같았다.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께 드리는 9일기도와 요셉 성인 9일기도, 삼위일체 성녀 엘리사벳과 함께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 등 안 해본 기도가 없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보려던 내게, 선물처럼 찾아온 기도가 있었다. 바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9일 기도.’ 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 되시기 전

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매듭을 푸시는 성모마리아 성화를 바라보신 순간, 마음의 얽힌 매듭이 풀리는 체험을 하셨단다. 교황님이 되시면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고하셨는데, 가정의 어려움(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이 컸던 나로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교황님께서 하라는 대로 믿고 기도하며 단단히 얽힌 매듭을 풀어나갔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 대한 일화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어느 귀족부부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한 사제는 그들을 위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마침내 그 부부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 이야기를 아는 화가, 요한 슈미트너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을 그렸다.(세상의 매듭을 푸는 교황 프란치스코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듭은 뭘까? 5월 한 달 동안 다섯 대륙의 성모 성지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를 한 마음으로 바쳤는데, 지난 6월 바티칸 정원에서 교황님의 주례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기주의와 무관심, 전쟁과 폭력의 매듭을 풀어’ 달라고 기도하셨다.

아울러 교황님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

님' 성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오늘 저녁 우리는 매듭을 푸시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 앞에 모였습니다. 당신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물적, 영적으로 짓누르는 매듭을 푸시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 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나와 가정의 매듭을 풀어가는 기도의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큰 매듭들이었다. 그런데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을 공부하면서 쉽게 정화되지 않는 죄와 악습 등 매듭에는 그 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뿌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묶인 매듭을 소홀히 여긴 탓에, 큰 매듭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풀 수 없는 큰 매듭을 풀기보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풀어갈 수 있는 매듭, 즉 분노와 두려움, 불안 등 감정과 악습의 매듭, 칠죄종의 매듭, 인간관계와 하느님과 관계 방해하는 매듭, 그리고 가정의 매듭을 풀어달라고 성모님께 청했다. 토빗기에서 하느님께서 눈이 멀고 박해를 받던 토빗과 결혼만 하면 남편을 잃는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파엘 천사를 파견하시어 두 사람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후손 대대에 축복으로 갚아주셨는데, 이 가정의 삶을 교과서로 삼아 실천해봤다.

내가 어떤 매듭에 묶였는지, 그 상처와 악습,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인식해가면서, 남이 묶은 매듭이 아니라 내가 묶은 매듭부터 풀자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가르멜의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난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와 가족이 정화되고 변화되는 은총을 누렸다. 또 고통 속에 갇혔던 우리 가정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하는 연대적 삶으로 탈

바꿈하면서 교황님의 지향대로 살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매듭을 푸는 지름길이자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종교인이 아니어도 집집마다 매듭이 없는 집은 없는 듯하다.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늘 쏟아지지만, 내 마음에 얽힌 매듭이 있거나 가시가 있으면 그 사랑을 어찌 알고 받아들일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시며 묶이고 종살이하는 이들의 매듭을 풀어주며 잘 돌보라고 하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 역시 온갖 매듭에 묶였었다. 스승을 모른다면 배반의 매듭, 절망과 수치심의 매듭, 성급함과 시기 질투의 매듭 등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괜찮다. 너의 어두운 과거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파견하셨다. 또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 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18,18)라는 말씀을 통해, 지상에서 매듭 풀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바라셨다.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줄이 가늘거나 굵거나 간에 새를 묶은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새가 날지 못한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집착을 끊지 않는 영혼은 하느님과 합일하는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 「잠언과 영적권고」)라고 하시며, 감각과 악습의 정화를 강조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듯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을 통해, 우리 가정에 많은 매듭을 풀어주셨고,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와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지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시간은 오늘 하루뿐임을' 이라고 하신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씩만 살아냈다. 그 하루의 기도가 모여, '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라는 책이 얼마 전 출간되었다. 책의 첫머리엔 '이 책을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바칩니다' 라고 썼다. 언젠가 꼭 교황님께 헌정하고 싶다는 갈망을 담아 말이다.

그 마음이 통했던 걸까? 개정판이 나온 지 이틀 후, 어느 수도회 신부님께서 교황님께 책을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분원장 신부님께서 최양업 신부님 기적심사 일로 바티칸에 가게 된 것이다. 스페인어로 일부 번역까지 해주시며 애써 주셨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교황님의 권고대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기도하며 맺은 열매를 담은 책이니,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었다. 내 책과 편지 글은 교황청 집무실이 아닌 교황님이 머무시는 마르타의 집까지 무사히 전달되었다.

오늘 하루의 기적! 책을 펴내고 교황님께 헌정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깨어 기도하며, 작은 매듭부터 하나씩 풀어온 시간들. 그 오늘, 그 하루가 모여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에 나는, 우리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병마와 가난, 온갖 상처의 매듭에 묶여 고통 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다. 나의 어두운 과거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 회원의 글 *

기도가 되는 것을...

이정미(아기예수의 헬레나)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기도상 앞에 앉으려고
집안일을 대충 해치운다
빨리 성체 앞에 가려고
이웃의 하소연을 지나친다

성전 안
봉헌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바로 옆길에는
하느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이
세상의 헛것을 찾아
분주하게 오고 간다

기도상 앞이나 성체 앞에서
숨어, 위로에 취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날개 찢긴 이들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다

일상의 일을 하느님 일처럼
성심껏 하면 기도가 된다

목마르고 아픈 이웃에게
손 내민다면
그 또한 기도가 된다

주어진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기도가 되는 것을...

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일과
세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
그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을...

* 축일 *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가르멜산은 엘리야 예언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팔레스티나에 있는 산이다. 구약에 의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심한 가뭄에서 구해주시도록 탄원했던 산이다. 바로 그곳에서 비를 몰고 오는 구름 위에 성모님이 엘리야에게 발현했다고 한다. 성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옹호했던 가르멜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12세기에 일단의 은수자들이 이 산에 정착하고 그 후 천주의 거룩한 모친이신 성모님의 수호 아래 관상 생활을 하는 가르멜회를 설립했다.



7월 16일은 "가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이고 이날은 가르멜 수도회의 가장 큰 대축일이다. 이날을 축일로 서방 교회가 거행하기 시작한 것은 1926년이며, 가르멜산의 성모 공경, 가르멜회의 영성 그리고 스카플라의 하사 등을 기념한다. 가르멜산에서 엘리야는 오랜 가뭄 끝에 간절히 기다리는 비를 위해 일곱 번이나 기도하니, 마침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라, 이윽고 비가 쏟아졌다(1열왕 18:41-46). 축복의 비를 몰고 온 이 작은 구름 속에서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상징을 알아본다. 5세기에 이미, 예루살렘의 크리스뽀는 동정 마리아를 "성인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비구름"으로 언급하였다. 그 후 12세기부터, 가르멜산은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는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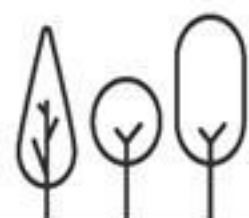
1220년경에 쓰여진 순례자를 위한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가르멜산 위에는 가르멜의 형제들이라 부르는 라틴계 은수자들의 집들이 있다. 또 그곳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한 소성당도 있다." 봉건 시대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마리아께 성당을 봉헌한다는 의미는 성전 봉사에 자신을 바칠 뿐만 아니라 서원으로써 인준받은 인격적인 봉헌을 통하여 마리아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가르멜회의 은수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우리 회의 수호자로 모시고, 우리 수도회의 공식 명칭을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형제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명칭은 가르멜 회원들에 대한 마리아의 보호만을 뜻하지 않고, 대한 우리의 봉헌이 진실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멜산은 마리아의 산이다. 이곳에서 가르멜의 은수자들은 복되신 동정녀의 영적 발자취를 따르고, 동정녀께 대한 신심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17세기에는 가르멜산의 성모 경당이 가르멜 대수도원과 함께 건립되었다. 가르멜 회에 있어서 마리아는 항상 관상의 어머니요 모델로서 함께 걸어가신다. 즉 마리아 어머니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가는 자녀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다.

출처: 가르멜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홈

* 회원의 글 *



나무들의 소식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뎃다)/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며칠 전에 모바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가 오가는 세상에 대수로울 것 없는 문자지만 한 곳에 오래도록 시선이 머문 것은 왜일까요? 그분은 보고 싶다 했습니다.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시간을 내주면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답장은 안하고 가만히 전원을 끄고 아파트 앞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꽃양귀비와 수레국화가 어울려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넷물에는 맑은 물이 여울져 흐르고 하늘은 맑습니다. 저물녘이라 사람들은 뜸하고 꽃들만 제 세상인양 평화롭습니다. 이런 시각이면 어느 수도원 작은 수방에서 묵상에 드실 수사신부님이 떠오릅니다. 걷다가 벤치만 나오면 앉습니다. 집 앞에서 철다리까지 젊은 사람들은 30분이면 걷는다는데 나는 한 시간을 걸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꽃구경하느라, 때로는 벚나무 그늘에서 하염없이 서성이느라 시간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목이 되어가는 벚나무인데 구멍 난 몸에 개미들이 연신 드나들며 한 살림 차린 것 같습니다. 고목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었을까, 사월에는 벚꽃이 흐드러져서 고마웠지요. 나무의 나이테가 나보다 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가슴을 엽니다. 아까 받은 문자를 여태 품고 있다가 나무 그늘에서 다시 펴는 것은 나무에 대한 책들을 읽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즈음 사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간해서는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코로나19 탓인지 미사에 못가고 사람 만나

는 일이 부담이 되는 날이 너무 오래여서 그런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하루 세끼 먹는 일에 의미를 두는 식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괴감, 이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던가요? 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잠 못 든 날이 있었는데 한동안 사람을 전연 못 만나고 사니 말을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동안 혼자여도 시간을 알차게 보냈거든요. 화초 가꾸고 청소하고 책 읽고, 차 마시고 가끔 산책하고 어떤 날은 카톡에 붙들려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서도 혼자 시시덕거리며 잘 지냈지요. 늘 누군가와 밀회를 하고 있는 듯한 충만함이 내가 즐겁게 산 이유였지요.

그런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용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문자를 받으면 잊지 않고 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 건 돌아오라는 무언의 당부 같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안부가 전부인데 반응하는 내 맘은 다르거든요. 이상한 것은 내가 힘들어할 때, 기가 죽어 있을 때, 누가 코치라도 하듯이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독회원에게는 그 안부가 하느님이 보내주신 기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운 분들입니다. 문자를 받는 날은 비좁은 강의실에서 포개 앉다시피 하면서도 신부님들의 열강에 영적 갈증을 풀고 도시락을 펴놓고 조용조용 점심밥을 먹던 기억이 소환되고는 하지요.

미사를 드릴 때면 창살 넘어 수녀님들이 몇 분인가 까치발로 헤다가 주저앉던 수련기가 떠올라 혼자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침 푹 떼고 잘 지낸다고 답장을 보내고서 며칠 동안 훈훈하게 지내거든요.

요즘 『나무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숲 전문가가 들려주는 나무의 사생활과 그 이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를 받고 느낀 것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나무도 감각과 감정, 기억이 있으며 뿌리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고 하네요. 그들은 어린 세대를 사랑하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든 이웃을 돌보기도 합니다. 병이 든 개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죽지 않게 보살피며 나무 한 그루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주변의 다른 나무에게 알리고, 이 경고를 받은 나무들은 서둘러 대비하여 자신을 방어한다는 글을 읽으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나무들 뿌리의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 가르멜의 네트워크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보내주시는 메신저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매달 받는 회보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보급해 주시거든요. 하느님을 주목으로 삼고 사모 데레사의 영성과 사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이 가르멜의 뿌리가 되어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 현존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음을, 거기 나는 아주 작은 이파리로 매달려 살고 있다는 안도감에 저녁 산책길이 은혜로웠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숲 공동체의 자산이듯이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자산이고 나도 그중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하느님이 직접 가꾸시는 가르멜의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이 모여 가르멜 숲을 이루었습니다. 숲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들의 안식처이듯 우리의 영성은 세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가르멜의 산길을 함께 손잡고 오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르멜 나무 한 그루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기별을 보내고 외로워 기죽지 않게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사회적 존재가 된 것은 함께하면 살아내기가 더 유리해서라고 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늘 죄송하지만 실뿌리 하나라도 달아있다고 기별을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찬미 주님입니다.*



2021년 9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 범위: 제27장 해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라 말하는 것

1. 27장을 읽기 전에

『완덕의 길』 27장에 접근하기 전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함이 좋을 듯 싶다.

첫째, ‘거둠’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성녀가 거둠을 기도의 “내면화”로 이해했으며, 이는 구송기도와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는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는 것이며(26~27장), 그 다음으로 자신의 영이라고 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28~29장)이다.

성녀는 27장을 통해 첫 번째 요소인 그리스도론적 측면을 발전시켰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권했다.

둘째, 우리는 기도 안에서 손상되고 변질된 모든 인간적인 부성 또는 형제애를 넘어서 하느님의 부성을 느끼며 살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자의 신비 그리고 자녀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셋째, 성녀는 여기서 하느님의 부성 또는 우리의 자녀 됨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독자는 성녀가 가르친 거둠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문턱 앞에 남아 있는지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읽도록 성녀가 쓴 글이라 하겠다.

2.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아버지께? 아니면 예수께?

전례는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기도이다. “오직 그분을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상전처럼, 신랑처럼 대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졸도록 해 나가면, 그분은 그분 마음에 드실 일을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완.바 28.3).

하지만 데레사가 본 장 전체를 통해 표현하는 기도의 흐름은 삼위일체적인 스케마를 반영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머물도록 힘쓰면, 반드시 성령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지에 불을 질러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과 결합하시게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근본적으로 데레사는 성자를 통해 성부께 기도드렸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자를 통해” 그리고 “성자를 위해” 성부께 기도했다는 말이다.

3. 데레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성녀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영혼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을 향해 오르며” “완전한 관상”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일련의 감탄문들은 어떤 면에서 성녀의 기도가 내포한 내적 움직임의 흔적을 보여 준다. 성부에게서 성자로, 예수님에게서 독자들로 그리고 인류에게로, 구송기도에서 관상을 향한 운동에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에서 이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1)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성자의 감정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성부와 더불어 가졌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눠 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는 자신이 갖는 자녀적인 감정으로 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을 ‘아버지’ 라 부르도록 초대받은 것이다.

2) “아버지는 찬미 받으소서.” 성녀의 기도는 이 말과 더불어 성부의 신비, 그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특히 “우리에게 성자를 내어 주신” 그분의 뜻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특히 “우리에게 성자를 내어 주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그분 현존의 침묵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게 한다.

3) 성자의 신비.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는 그분과 함께 자녀로서의 감정을 나눠 받는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 함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처럼 “이 지상에 사시고” “지상의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신비와 점진적으로 대면하게 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를 감내하신 분” 이시다. 예수님의 인성(人性) 안에 담긴 성부와 맺은 신비로운 관계가 내포한 일련의 의미들을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신비를 들 수 있다. 바로 거기에서 하느님의 부성이 지닌 신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형제 관계의 신비에 대한 모든 관상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자녀 됨의 상태를 누리도록 부름 받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닌 품위를 망각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은 졸으신 예수님이 주신 졸으신 아버지를 뒤흔으니, 여기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기 위하여 다른 아버지는 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곁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품안에 안

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듯 크신 아버지를 잃을세라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

4. 자녀적인 체험에 대한 비밀스러운 샘으로부터

이 경우 역시 성녀는 하느님의 체험이라는 영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거기에는 성녀를 불타오르게 하는 뭔가가 있다.

이는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을 진리의 “아버지” 로 부를 때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일어나는 체험이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흐뭇해하신 사실” 은 데레사에게 커다란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성부께서는 “그분 안에 당신의 기쁨이 있다” 고 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자식들인 우리 안에 당신의 즐거움을 두시길!” (외침 7).

성녀 또한 마음에 사무치는 이런 하느님의 부성적인 기쁨을 존재 전체로 체험했다는 점이다(참조: 자 14, 10).

우리는 하느님의 부성이 데레사의 영혼을 관통함으로써 데레사 안에 야기된 충격을 데레사가 『영적 보고서』에서 전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네 안에 있는 것을 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너에게 주어진 보화를 즐겨라... 나의 아버지께서는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보고 13).

- 또한 성녀는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체험을 했으며 그 체험 중에 다음과 같은 성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아들과 성령과 이 동정녀까지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보고 25). *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발췌

수도회 소식

하반기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강의 주제	강사
8월 13일	십자가 성 요한 영성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욕' 과 '육체적 감각들' 에 대한 정화와 합일의 두 차원에서의 이해	김광서 토마스 수사
9월 10일	소화 성녀 데레사의 믿음의 시련	신호준 마리오 수사
10월 8일	성모 신심	서해원 콜베 수사
11월 12일	가르멜의 거둠기도	강유수 마리오 수사
12월 10일	십자가의 성 요한과 성모님	권영상 클레멘스 수사

- 7월은 쉬어 갑니다.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8월 13일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성시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지하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고해성사, 미사

날짜	지도
7월 31일	조성훈 다미아노 신부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지하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10시부터 고해성사)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 피정

- 시 간: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1시 ~ 5시
- 장 소: 서울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 참가비: 1만원 (강의록 배부)
-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참석자 성명 및 세례명: 문자 메시지)
- * 강의, 성체 현시와 기도(고해성사), 미사

성녀 소화 데레사 신심미사

서울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인천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인천 가르멜 수도원
대구	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대구 재속 가르멜 회관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과 신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신자, 수도자, 재속회원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피정(36 주제) 및 성녀 소화 데레사 신심미사는 조운용 엘리야, 권영상 클레멘스, 신호준 마리오 신부가 돌아가면서 지도합니다.

마리아노 수사님 서원 갱신

지난 6월 6일, 광주 수도원에서 마리아노 수사님의 서원 갱신식이 있었습니다. 가르멜에서 수사님이 하느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게 수도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로 함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 우리 1006-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 관구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임동임 자비의 누갈다(향년 74세)
 - 선종일: 2021년 5월 25일
 -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윤문자 성모 통고의 마리아(향년 80세)
 - 선종일: 2021년 6월 5일
 -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경축

-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 날짜: 2021년 5월 15일 방문 은경축
 - 회원: 박정순 예수성심의 헬레나





찬미

환도뼈가 부러진 날에도
갓난 아들은 미소를 보이고
그 사랑의 눈 맞춤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Jean J de C